평신도 Vol. 42 WINTER 2013

평신도

Vol. 42 WINTER 2013

이 겨울의 사색 | '형제애와 가정기도'

특집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유흥식 주교 인터뷰 '가정은 보석상자'

특집 | 신앙의 첫자리 · 가정
성탄의 의미

평신도가 뛴다 | 가톨릭농민회

사진제공 · 월간 가톨릭 비타꼰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1904.1.1 10:25 PM ˘□□□`□2 G4^□•´ PS_IN 2750DPI 300LPI T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의 드높은 품위를 지켜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의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_42-‡»` 5 1904.1.1 8:15 PM ˘ `1 G4ˆ•´ PS IN 2750DPI 300LPI T

Contents

생각 THINKING

02. 형제애와 가정기도/최홍준

특집 SPECIAL

04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
10 유흥식 주교 인터뷰/배봉한
13 가정을 위한 기도
14 신앙의 첫자리,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전한태
부부는 아름다운 친구/송진화
딸의 첫 영성체/조효정
성가정 커플 만들기/박광수
2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석규

영성 SPRITUALITY

24 신앙에 물주기-나눔 편/손희송
12월의 엽서/이해인
성탄이 의미/오창익
신앙을 위해 피흘린 선조들을 생각하며/방관석

지금 HOT & NOW

32 평신도가 뛴다/한국가톨릭농민회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박진주
37 갈참나무의 눈꽃/정두리

생명·평화 LIFE & PEACE

38 하느님 보시기 무척 불쾌하시리/박병상

문화 CULTURE

40 가톨릭양서/김선동
성화이야기/권용준
아가다의 음악편지/양인용
가톨릭특강/명백훈
기도로 걷는 길/류정호
51 2014년 교황님 기도지향

소식 NEWS

52 지금SNS에선/유영훈
54 평신도 뉴스
80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도문

_42-‡»` 5 1904.1.1 8:15 PM ˘ ` 2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형제애(兄弟愛)와 가정 기도

최홍준 파비아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그리스도 중심의 신자 생활

갑오(甲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제를 돌아보고 앞날을 가늠해보는 것은 저만의 일이 아닐 줄 압니다.

지난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작된 '신앙의 해'가 2013년 11월 24일에 막을 내린 것이 저에게는 가슴 벅찬 일이었고, 지난해 11월 24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앙의 해 폐막미사를 주례하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기를 당부하신 데 대해 깊이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교황님은 이날 미사 강론에서 "진정한 신자라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둬야 한다"면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기초를 그분께 두고, 그분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그리스도께 두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며, 그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저마다 다른 '우상'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애, 평화의 바탕이자 통로"

교황님은 또 새해 첫날에 지내는 2014년도 세계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방자한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 유물론적 소비주의, 약해진 사회유대감은 정신을 흐리게 해서 종국에는 약자를 경멸하고 포기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교황님은 금융투기자들이 종종 전체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약탈하고 해악을 끼쳐 수백만 명을 가난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면서 기존의 군축협정이 무력충돌 위험에서 인류를 지켜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십니다. 10개 항목으로 구성한 평화의 날 메시지 프롤로그에서 교황님은 창세기(4,9)의 말씀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는 결론 부분에서 마태오 복음(23,8)의 "너희는 모두 형제"라는 말씀을 제시하면서 "모든 이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십니다. 평화의 날 메시지는 또 형제애에 관한 여섯 마디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체 제목이기도 한 "평화의 바탕이자 통로"인 형제애는 가난, 경제, 전쟁, 부정과 구조적인 죄,

_42-‡»` 5 1904.1.1 8:15 PM ˘ ` 3 G4ˆ•´ PS IN 2750DPI 300LPI T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기도를 가르치는 첫째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설령,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기도는 꼭 하는 습관을 당부합니다.

자연보호와 개발에 이르기까지 두루 필요한 덕목이라고 일러줍니다.

인류 가족인 우리는 사실 하느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가정은 기도를 가르치는 학교요 교회

형제는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기도를 가르치는 첫째 장소"라고 「가톨릭교회 교리서」(2685)는 일깨워줍니다. 혼인성사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교회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익힌 우리는 이제 실제로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화해나가야 할 줄 압니다. 가정의 공동 기도로서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는 물론, 묵주기도가 매우 바람직한 기도이며,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기도로서, '쉰아홉 개의 알약'이라고까지 말하는 이 기도는 영혼의 병을 낫게 해주는 영약이며,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저는 최근 결혼을 앞두고 저를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설령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기도는 꼭 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부탁했습니다. 몇몇 분들과 함께 얼마 전 정 니콜라오 추기경님을 찾아뵈었을 때 새로 써서 펴내신 「닫힌 마음을 활짝 여는 예수님의 대화」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장을 펴시더니 일일이 받을 사람 부부의 이름 다음에 "주님, 이 가정에 풍성한 은총을 베푸소서"라고 적으시고는 서명을 해서 한 권씩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가정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신자 가정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부부 이름을 함께 적어서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있게 하려면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간의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느님의 친교와 일치를 본받아 노력할 때 이뤄집니다.

평협은 특히 순교자와 증거자 등 '하느님의 종'들의 시복시성을 위해서 125억단 묵주기도운동을 벌이고 있고, 금년 가을에 124위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식이 우리나라에서 거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복이 될 때까지, 그리고 증거자 최양업 사제의 시복과 이분들 모두가 시성이 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가족과 함께 기도를 계속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_42-‡»` 5 1904.1.1 8:15 PM ˘ ` 4 G4ˆ •´ PS IN 2750DPI 300LPI T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1월 26일 신임 교황의 새로운 회칙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발표했다. 5개 장, 288개 항으로 구성된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은 아직 우리말 전문이 번역돼 나오지 않았다. 주교회의 누리집에는 바티칸통신(VIS)이 전하는 개요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다. 개요만 접하고도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신선한 충격과 기쁨,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의 개요를 전재한다. – 편집자 주

복음의 기쁨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가득 채웁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교황님의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복음 선포'라는 주제를 전개하신다.

이 주제의 바탕에는 다른 무엇보다 2012년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바티칸에서 '그리스도 신앙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작업이 크게 기여하였다.

교황님께서 11월 24일 '신앙의 해' 폐막 미사 후 신자들에게 건네주신 교황의 권고 〈복음의 기쁨〉은 전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함께 쓰신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공식 문헌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다음과 같이 쓰셨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두드러진 복음화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도록 격려하면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교회가 걸어가게 될 여정을 위한 새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세례 받은 모든 이를 향한 교황님의 진심어린 호소로, 이들이 새로운 열정과 활력으로 곧 '지속적인 선교 상태'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오늘날 세상의 커다란 위험, 곧 개인주의적 '피폐와 고통'에 빠지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 본연의 참신함을 되찾자고 초대하시며, '새로운 길'과 '창조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진부한 도식 안에 가두지 말자고 하신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으므로 사목적이고 선교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또 교회 조직들을 더욱 선교 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교회 조직의 개혁이 필요하다.

교황 성하께서는 교황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뜻과 현재의 복음화 요구에 더욱 충실하도록 교황직의 전환도 고려하고 계신다. 또한 각국 주교회의가 합의체적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리라는 희망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신다. '건실한 분권화'가 필요하다. 이 쇄신의 과정에서 교회는 비록 오랜 역사적 뿌리를

_42-‡»` 5 1904.1.1 8:15 PM ˘ ` 5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복음의 기쁨〉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공식 문헌입니다. 교황님은 이 문헌에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여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핵심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일부 관습을 두려워 말고 재고해야만 한다.

"하느님의 개방성을 보여 주는 표시로 우리 성당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느님을 찾는 이들이 '차갑게 닫혀 있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성사들의 문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 성찬례는 완벽한 이들에게 마련된 보상이 아니라 나약한 이들을 위한 영약이며 양식이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가 신중하고도 담대하게 숙고하도록 부름 받고 있는 사목적 귀결로 이어진다."

교황님께서는 자신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는 폐쇄적인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 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더 좋아하신다고 거듭 말씀하신다. "저는 중심이 되려고 걱정하다가 집착과 절차의 거미줄에 사로잡히고 마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걱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정을 맺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교황님께서는 개인주의를 비롯하여 정체성의 위기와 열의 부족처럼 사목 일꾼들이 겪게 되는 유혹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교회의 일상생활에 스며든 음울한 실용주의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황님께서는 패배주의에 대해 경고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혁명을 이루는 희망의 징표가 돼라고 촉구하신다.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나만 잘 살자는 정신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는 정신의 세속성을 이겨내야 한다.

교황님께서는 스스로를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은 과거의 특정한 가톨릭 양식에 완고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며, 다른 이들을 복음화하는 대신에 남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며, 또한 화려한 전례와 교리 또는 교회의 특권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사람들의 요구에 복음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는 선으로 포장된 끔찍한 타락이다. "하느님, 껍데기뿐인 영성이나 사목으로 치장한 세속적인 교회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교황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들이 시기와 질투의 포로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하느님의 백성

_42-‡»` 5 1904.1.1 8:15 PM ˘ ` 6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오늘날 세상의 위험은 개인주의적 피폐와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므로, 사목적이고 선교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여러 공동체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처신으로 과연 우리가 누구를 복음화하고자 한다는 말입니까?" 교황님께서는 지나친 성직주의 때문에 의사 결정에서 밀려나 있는 평신도의 책임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신다.

이에 덧붙여 한층 섬세한 여성들을 위한 기회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러하다고 말씀하신다. 여성들의 합법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가볍게 넘겨버릴 수만은 없다. 젊은이들 또한 더욱 큰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수많은 지역에서 성소 부족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교황님께서는 신학교들이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무턱대고 성직 후보자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신다.

토착화의 주제와 관련하여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교는 단 하나의 문화적 표현만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회의 얼굴은 다양하다. 우리는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그들의 그리스도 신앙을 표현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그들 역사의 특정한 시기에 발전시킨 표현 양식을 따라하라고 주장할 수 없다. 교황님께서는 대중신심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화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힘이라고 역설하시며, 신학자들의 연구를 격려하시고 교회와 신학은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키시며 '탁상 신학'에 만족하지 말라고 촉구하신다.

교황님께서는 강론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하시며, 이 중요한 직무와 관련한 수많은 요청들을 우리가 모른 체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다. 강론은 간략해야 하고 연설이나 강의와 같아서는 안 된다. 강론은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어야 하고, 특히 순전히 도덕적이거나 교리적인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황님께서는 강론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준비가 되지 않은 강론자는 '영성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며 무책임하다. 훌륭한 강론은 언제나 긍정적이며 언제나 희망을 주고 신자들이 부정의 덫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음 선포는 그 자체로 긍정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곧 복음 선포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고 인내와 온유, 그리고 심판하지 않는 환대를 담고 있어야 한다.

현대 세계의 도전들과 관련하여 교황님께서는 현재의 경제 체계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규탄하신다. 그러한 경제는 사람을 죽인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일회용

_42-‡»` 5 1904.1.1 8:15 PM ˘ ` 7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또 교회 조직들을 더욱 선교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교회 조직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왔다. 거기에서 배제된 이들은 착취당하는 이들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들', 곧 '잉여 인간들'이다.

이로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흔히 실질적인 새로운 폭정, 곧 '시장 자율'이라는 새로운 폭정이 생겨났다. 여기에서는 금융 투기와 만연한 부정부패와 자기 잇속만 차리는 탈세나 세금 회피가 판을 치고 있다.

교황님께서는 종교 자유 침해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새로운 박해를 규탄하신다. 많은 곳에서, 이것이 무차별주의나 상대주의의 만연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어서 교황님께서는 가정이 심각한 문화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또한 혼인이 사회에 가져다주는 중요한 공헌을 강조하시며, 현대 후기와 세계화 시대의 개인주의는 인간관계의 발전과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가정의 유대를 왜곡하는 생활 방식을 선호한다고 강조하신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화와 인간 진보의 긴밀한 연관성과 사람들의 삶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목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하신다. 어느 누구도 종교가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개인 생활의 내적 성역으로 치부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신다. 교회에 있어서 가난한 이를 위한 선택은 사회학의 범주 이전에 신학의 범주이다.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연유로 "저는 교회가 가난하고 가난한 이를 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가난한 이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할 것이다.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단언하신다. 정치는, 비록 흔히 폄하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숭고한 소명이고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이다.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삶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인들을 더 많이 보내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신다. 어떠한 교회 공동체든 가난한 이들을 잊어도 그만이라고 믿는다면 붕괴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사회의 가장 힘없는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신다. 노숙자, 중독자, 난민, 토착민, 점점 더 소외되고 버림받는 노인들과 이민들을 위하여, 교황님께서는 '관대한 개방성'을 권고하신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새로운 노예 형태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오늘날 우리네 도시에는 이 악명 높은 범죄망이 단단히 구축되

_42-‡»` 5 1904.1.1 8:15 PM ˘ ` 8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하느님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표시로 우리 성당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찾는 이들이 '차갑게 닫혀 있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

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침묵의 공모를 함으로써 이에 직접 연루되어 있다. 배척과 부당한 대우와 폭력의 상황을 감내하는 여성들은 이중으로 가난한 이들이다. 교회가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자 하는 힘없는 이들 가운데에는, 자신을 방어할 힘이 전혀 없고 무죄한 태아도 포함된다.

최근 들어 태아의 인간 존엄성을 부인하려는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인간 생명을 없앰으로써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진보적인' 것이 아니다.

교황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존중을 호소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깨지기 쉬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평화의 주제에 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이들을 침묵하게 하거나 유화시키려는 거짓 화해의 시도들에 맞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여야 한다고 단언하신다.

평화와 정의와 형제애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교황님께서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신다. '시간이 공간보다 앞선다'는 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즉각적인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일하라는 의미이다. '일치가 분열을 이긴다'는 말은 다양하면서도 생명을 주는 일치를 의미한다. '사실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정치나 신앙을 어떤 허언장담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피하라는 의미이다. '전체가 부분보다 더 크다'는 말은 세계화와 지역화를 함께 하라는 의미이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화에는 대화의 길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 길은 교회가 문을 열고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와 협력하게 이끈다. 교회 일치 운동은 '복음화의 필수적인 길'이다. 서로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매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정교회 형제자매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교 단체성의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합의 정신에 대한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울 기회를 갖게 된다.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대화와 우정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삶의 일부이다.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히 기쁘게 이루어져야' 하는 '종교 간 대화'는 세상의 평화를 위한 필요조건이고 복음화에 저해되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과 맺는 관계는 큰 중요성을 지닌다. 교황님께서는 무슬림이 서방 국가들에서 누리는 자유에 비추어서도 이슬람 전통 국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겸허히 간청하신다.

_42-‡»` 5 1904.1.1 8:15 PM ˘ ` 9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성사들의 문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닫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례는 완벽한 이들에게 마련된 보상이 아니라
나약한 이들을 위한 영약이며 양식입니다.

폭력적 근본주의 사건들에 직면하여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이슬람이라면 또 코란을 올바로 읽어보면 이는 온갖 폭력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인 일반화는 삼가도록 촉구하신다. 일부 상황에서 종교의 사유화 시도들에 반대하여, 교황님께서는 소수의 불가지론자나 비신자를 물론 존중하여야 하지만, 다수의 믿는 이들의 신념을 침묵시키거나 종교 전통들의 부요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독단적으로 이러한 존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신다. 그러고 나서 교황님께서는 신자들과 비신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밝히신다.

마지막 장은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선포자들에 대하여 다룬다. 이들은 두려움 없이 성령의 활동에 열려 있는 이들이고 언제 어디서나, 반대 받을 때에도 담대하게 복음의 새로움을 선포할 용기를 지닌 이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선교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고 그분 백성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일하는 복음 선포자들' 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어루만지기를 바라신다. 고통 받는 몸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비판하거나 단죄하는 적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들의 선익을 추구할 때,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바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내 삶의 봉헌은 의롭게 된다.

교황님께서는 실패나 부족한 결과를 두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풍요로운 결실은 흔히 눈에 보이지 않고 알아채기 힘들고 양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교황 권고는 '복음화의 어머니' 이신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로 끝을 맺는다.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는 마리아 '방식' 이 있다. 우리가 마리아를 바라볼 때마다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사랑과 온유의 힘을 다시 한 번 믿게 된다.

※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의 원문은 http://www.vatican.va/phome_en.ht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_42-‡»` 5 1904.1.1 8:15 PM ˘ ` 10 G4ˆ•´ PS IN 2750DPI 300LPI T

가정이야말로 사랑의 보석상자입니다

11월 21일, 주교회의에서 열린 '청소년사목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유흥식 라자로 주교(63)를 만났다. 대전교구장으로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주교는 함박눈 같은 특유의 웃음으로 소탈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큰 가정의 한 가족이라고 역설하며, 성탄의 기쁨을 어려운 가정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랐다. / 대담 · 정리: 배봉한 편집위원

저는 고1 때 저 혼자 집안에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톨릭 학교인 논산 대건중고등학교에 들어가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유럽이나 북미 등 발달한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 국가였어요. 이 기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교 교리반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성격이 뭐를 하나 시작하면 옆길 보지 않고 꼿꼿하게 가는 게 있어서 교리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조금 망설였지만, 1966년 성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6개월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6 · 25전쟁 때였습니다. 위로 누나와 형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주 가난했지만 남편도 없이 세 자녀를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하자 주무시지도 잡수시지도 않고, 왜 결혼도 안 하는 신부가 되려고 하느냐고 하시면서 극렬히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 간 뒤에 혼자 성당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가족 친지들까지 주위 사람 모두를 세례 받도록 하셨어요. 어머니가 복음의 사도셨습니다.

고2 때로 기억되는데 친구의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신앙 가정으로 삼촌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고모가 수녀였습니다. 주일이었는데, 점심 때가 되었을 때 친구 아버님이 삼종기도를 선창하시고 가족이 응답하고 식사기도를 한 후 밥을 먹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고 부러웠습니다. 빨리 커서 장가를 가서 나도 이런 가정을 꾸미겠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납니다.

가정, 인간성을 기르는 학교

신부가 되어서도 그렇고, 주교가 되어서도 그렇고, 가정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사랑의 보석상자라고 할까요? '가정은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르는 학교'(사목헌장, 52항)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도 말하지요. 모든 관계를, 모든 사랑을 거기서 다 배우게 되니까, 사람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교회와 사회, 인류 전체로도 최고 위기입니다. 교황님께서도 2014년에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임시총회 의제로 가정현상들을 선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 사목을 해야 하느냐 하는 교회의 처지에 대해서 토론하게 될 이 회의가, 교회와 인류에게 은총

_42-‡»` 5 1904.1.1 8:15 PM ˘ ` 11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이 되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일어나면 바티칸 라디오방송을 듣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방송인데 시차 때문에 아침에 듣게 됩니다. 교황님의 강론과 교황청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주는데 교황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황님은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가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페르메소(permesso:허락해요)', '그라치에(grazie:고마워요)', '스쿠시(scusi:미안해요)', 이 세 마디 말만 자주 하면 싸울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일반알현에서는, 신부도 죄인, 주교도 죄인, 추기경도 죄인, 나도 죄인이라며, 나도 보름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본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고해성사를 권고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큰 가정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부요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구는 이 길로 누구는 저 길로 다양하게 부르시기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사랑의 섭리가 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주시는데, 저는 저만의 유일한 방법으로 이 길로 부르셨으니 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에서 사제품을 받을 때였습니다. 포콜라레 사제학교에 있었으니까 40여 나라 출신 100여 명의 신부님과 신학생을 비롯해 로마에 있는 한국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아무도 못 왔는데, 사제서품 축하식 때 공동체 책임자 신부님이 함께 사는 모든 구성원을 제 가족으로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정말 모두가 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포콜라레 영성을 만나면서, 하느님이 아버지고 사랑이시라는 것과 인류가 하나의 큰 가정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피를 나눈 작은 가정을 포기하면서 더 큰 하느님의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제의 역할입니다. 저한테는 지금도 가정을 꾸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유지들이나 사람들을 초대할 때 될 수 있으면 부부를 함께 초대하지 혼자 따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구나 본당 행사 때도 그렇게 합니다. 피를 나눈 가정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가정인지

_42-‡»` 5 1904.1.1 8:15 PM ˘ ` 12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사목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부사랑과 자녀출산

부부는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조카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혼인서약은 자기 주권 포기 선언이다, 지금부터 상대를 내 주인이고 상관으로 여기고 서로 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느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은총을 주시기를 빌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게 혼인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랑의 최고 결실이 새로운 생명인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사업에 협력하는 일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니까 하느님께서는 부부 간에 육체적 기쁨과 희열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를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기르고 가르치다 보니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덕을 최고 학교인 가정에서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지요.

가정에서 누구 한 명 아프기라도 하면 밤을 새우면서 서로 희생하며 가족이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또한 큰형이 돈을 벌어 동생 학비를 대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이 우월감을 갖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열등감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느님 중심이고 사랑 중심이고 가치관이 올바로 서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 이기적이 되고 돈 중심, 경쟁 중심으로 어려워집니다.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신학교에 '혼인과 가정 신학원'을 만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성탄은 가정 축제

지난 9월 추석 휴가 마지막날 '치빌타 가톨리카' 지에 실린 교황님 인터뷰 소식을 읽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어떤 죄악보다 하느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차갑고 무뎌지고 혼란스러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목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목이라며 어머니를 닮은 교회,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므로, 동성애자나 이혼한 이들을 제쳐놓은 사람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분명히 교회가 그들도 품어주어야 한다는 자세를 표명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조당(혼인장애)에 걸렸다고 하면 제쳐놓은 사람처럼 되어버렸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아니죠. 어쨌든 지금까지 교회에서 공적으로 금기시되던 것이 논의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본래 성탄은 가정 축제입니다. 유럽에는 "성탄은 가족과 함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 키 수오이(con chi suoi)', 성탄은 자기 사람들 곧 가족들과 함께하고, '콘 키 부오니(con chi buoni)', 부활은 좋은 사람들 곧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성탄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에만 머물지 말고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초청해서 그들도 가정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이 작은 가정의 축제임과 동시에 여러 가정의 축제가 되어, 인류는 하느님이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신 큰 가정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뜨거운 마음이 주위로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_42-‡»` 5 1904.1.1 8:15 PM ˘ ` 13 G4ˆ•´ PS IN 2750DPI 300LPI T

가정을 위한 기도

사랑이요 생명이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정은 당신의 성삼에서 비롯되었나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랑의 샘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부부들의 생각과 행위를 당신의 은총으로 이끄시어
모든 가정의 선익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깨닫고
진리와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나자렛 성가정의 전구를 통하여 가정이 성화되고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성화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_42-‡»` 5 1904.1.1 8:15 PM ˘ ` 14 G4ˆ•´ PS IN 2750DPI 300LPI T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전한태 세례자 요한(개포동 성당)

언젠가 신부님께서 '성가정'이란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을 순명과 사랑으로 승화시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의 가정을 말한다고 하시면서 배우자에게 덕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모자람을 채워주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 결혼한 지 30년이 지난 어느날, 느닷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며 지나온 저의 삶을 되돌아 보게 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후에도 입원을 하는 일이 여러 번, 또 이식 수술까지 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이 제 가까이에서 느껴질 때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불안 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아내와 두 아들이었습니다.

무관심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저 자신만을 생각하며 가족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반성하며 주님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잘못을 빌었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노래하며 누구나 바라고 꿈꾸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내 가정이 비록 가난하고 초라할지라도 그곳이 사랑의 계명이 시작되는 곳이며 은총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절과 인간적인 기본교육은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한 인간이 태어나 인품이 형성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계획이자 명령입니다. 오늘날 하느님은 모든 가정의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이 되어 자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녀가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풍성한 사랑을 주고 그로 인해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최초의 선생님이자 인생의 멘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가정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목의 기본이자 바탕이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드러나는 각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_42-‡»` 5 1904.1.1 8:15 PM ˘ ` 15 G4ˆ•´ PS IN 2750DPI 300LPI T

가정에서 한 인간이 태어나
인품이 형성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계획이자 명령입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과 사목 페러다임 변화에 힘을 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지금처럼 절실했던 때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수 세기에 걸쳐 특히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혼인에 관한 교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년 10월 '가정사목과 복음화' 를 주제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전 세계의 주교회의에 신자들의 가정생활 실태를 알아보라는 사상초유의 '지구촌 풀뿌리 설문조사' 를 지시하셨습니다.

39개 설문 조항 모두 동성 간 결합, 이혼 ,재혼, 혼전동거 등 전임 교황님들은 언급조차 꺼리던 예민한 문제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들도 서구화된 삶의 모습과 외환위기 같은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가정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해체는 신자 가정에서도 예외현상이 아닙니다. 특히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독신과 동거가정이 크게 늘고 이혼 증가에 따른 재혼 가정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한 부모 가정(편부모)을 비롯해 독거노인 가정, 노인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도 급증하는 추세이며 실제 사회혼만 하는 신자들이나 이혼 재혼 등으로 교회에 아예 나오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내 사목현장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도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가정실태를 파악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오늘날 가정 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화의 시작도 가정이며 마지막 보루도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_42-‡»` 5 1904.1.1 8:15 PM ˘ `16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부부는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송진화 제노베파 (성미술 귀금속 공예가)

1. 페르낭 피(Fernand PY)의 혼인 메달 앞면

1-1. 페르낭 피(Fernand PY)의 혼인 메달 뒷면

2. 조르즈 레이(Georges LAY)의 혼인 메달 앞면

2-1 조르즈 레이(Georges LAY)의 혼인 메달 뒷면

서구 교회 미술에서 건축물이 활기를 띤 로마네스크, 고딕양식 교회들이 조각품들로 장식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에서였다. 이러한 프랑스의 오랜 교회 미술은 종교 메달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종교메달(성패)은 매순간 하느님 보호에 전적으로 의탁하려는 신앙인의 신뢰를 표현한 것으로 '신앙의 작은 공간' 으로, '기도의 공간' 으로 받아들여졌다.

프랑스의 종교메달(성패) 가운데 페르낭 피(Fernand PY, 1887~1949)의 혼인 메달과 조르즈 레이(Georges Lay, 1900~?)의 혼인 메달은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에서 오는 은총임을 뜻하는 성사로서의 거룩한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페르낭 피의 혼인 메달 이미지에서 교회의 십자가는 신성함을 표현한 것이며 사랑의 상징인 하트의 관을 쓴 두 마리의 새는 신랑 신부를 묘사하고 있다.

메달 중앙의 원반은 인생의 항해를 위해 필요한 신앙심과 용기, 생명력을 담고 있는 '생명의 샘' 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신랑 신부는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생명의 물' 을 함께 마시며 인생 항해에 필요한 신앙과 용기, 생명력을 얻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또 다른 혼인메달은, 프랑스 금속 조각가 조르즈 레이의 1950년 작품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가장 아름다운 친구로 묘사한 메달이다.

이 메달은 양면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메달의 한 면은 '결혼' 이라는 제목으로 알몸으로 서 있는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각자 꽃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메달에서 보듯 레이의 작품 속에 표현된 인체는 부자연스럽게 길고 가늘게 표현된 게 특징이다.

_42-‡»` 5 1904.1.1 8:15 PM ˘ ` 17 G4ˆ •´ PS IN 2750DPI 300LPI T

인생이라는 배를 탄 두 사람을 메달 중앙, 공간의 여백과 함께 한층 안정적으로 표현하여 험난한 인생 여로를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의 삶을 평화롭게 그리고 있다.

이는 1, 2차 세계대전 등 20세기의 불안과 실존적 고독을 겪은 레이가 인간의 나약함과 고독한 내면을 빈약한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알몸으로 서 있는 남자와 여자에게서는 겉치레가 없어진 인간에게 남아있는 본질, 두 사람의 영혼을 담으려 했던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메달 테두리 높이까지 세로로 길게 인체를 형상화한 것은 고딕예술 표현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높은 곳을 향하려는 열정, 기도로의 초대이다.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친구는 바로 우리'라는 구절을 메달 테두리에 각인해 놓음으로써 서로의 존재를 아름답고 소중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른 한 면은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이라는 배를 탄 두 사람을 메달 중앙, 공간의 여백과 함께 한층 안정적으로 표현하여 험난한 인생 여로를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의 삶을 평화롭게 그리고 있다.

이 두 혼인메달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필요한 혼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의미 있는 상징들이다. 혼인은 부부가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성사로서 부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생활은 곧 성사생활이다. 왜냐하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강조한 것처럼 가정은 교회와 성소의 원천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한 몸이 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한 채 어떤 길을 항해하게 되는지 메달에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각자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_42-‡»` 5 1904.1.1 8:15 PM ˘ ` 18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딸아이의 첫 영성체

조효정 마태아(서울대교구 신월동 성당)

세 아이의 엄마로 직장맘으로 바빠 딸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나는,
딸과의 오붓한 '데이트 시간'이라도 만들자며,
큰 아이의 첫영성체 교리를 시작했다.
교리를 배우러 오가는 그 길은, 딸아이와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
하느님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찬미예수

출근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이 첫영성체를 함께한 부모로서 교리 공부를 하는 동안 느낀 점을 나누자는 메시지였습니다. 글로 나를 표현한다는 것이 어쩐지 어색하고 자신이 없어 거절하고 거절하는 끝에, 문득 하느님이 늘 그러하셨듯이 제게 손을 내밀며 하느님 품안으로 안아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부끄럽게도 왜 하느님을 믿어야 하며, 주일은 왜 지켜야 하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는 왜 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지은 듯 괴로워야 하는지… 수없이 많은 왜? 왜? 왜?를 외치며 훗날 내 아이에게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주리라 다짐하며, 하느님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외면하고 멀리하면 할수록 하느님은 더 가까이 저와 함께하시는 듯했습니다.

올해로 결혼 13년차에 접어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딸, 1학년 아들, 그리고 네 살 된 딸을 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_42-‡»` 5 1904.1.1 8:15 PM ˘ ` 19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한 달 전 큰 아이가 1년 남짓 준비해서 첫영성체를 했습니다. 고백하건대 이 또한 저를 하느님 가까이 부르시는 손짓 중 하나였습니다. 늘 그렇듯 어리석게도, 그때는 그 손짓의 은혜도 은총도 모른다는 겁니다.

딸 아이의 첫 영성체는 너무도 뜻밖에 이루어졌습니다. 첫영성체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미 한 달이나 교리가 진행된 상황에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딸아이와 함께 첫영성체 교리에 참여하면서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직장맘인 저는 회사 업무와 가사로 바빠 딸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도 저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딸아이 또한 동생들로부터 엄마를 독차지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첫영성체를 교리를 받기 위해 성당을 오가는 40분의 시간을 딸과의 오붓한 데이트 시간으로 하자는 마음으로 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동안 정작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시고 학교생활은 어떤지? 학원은 어떤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의 대화로 오가는 길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딸과 저의 대화는 사랑과 나눔, 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하느님이 깊이 자리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딸과 대화할 시간을 바랐는데, 하느님은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현관문을 나서는 아이들의 이마에 성호경을 그으며, 모든 것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게 되었고 기도 속에 함께하는, 그래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가정 이루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성당에 가기를 싫어하던 딸 현지는 율찬부를 통해 수화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예쁜 딸이 되었고, 동생들에게도 하느님과 함께하자고 말합니다.

멋쟁이 할머니가 '신신우신' 공중파를 통해 손녀의 첫영성체 축하 메시지까지 띄워주셔서 그 기쁨과 추억이 더 커졌습니다.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성가정을 꿈꾸며 내 딸은 신앙의 사춘기를 앓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사랑합니다.

_42-‡»` 5 1904.1.1 8:15 PM ˘ ` 20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무료 성가정 커플 만들기, ‘천연(天緣)’ 봉사 왜 하세요?

박광수 프란치스코(촬영 감독)

초등학교 입학 전, 과자를 사먹으려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우리 집 장롱을 뒤지다가 우연히 앨범 속에 들어 있는 흑백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잘 생기고 멋있는 청년이었다. 그다지 큰 체격은 아니지만, 다부진 몸매, 기름을 발라 올백으로 넘긴 갸름한 얼굴은 지금 생각해도 영화배우 원빈보다도 멋지고 잘 생긴 최고 배우 같았다.

나중에 앨범을 꺼내들고 어머니께 누구냐고 여쭤보니 젊은 날의 개신교 선교사이셨던 아버지라고 하셨다.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는 내게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나가도록 알려주는 사람이라 하셨다. 여섯 살 때, 우리 동네에는 작은 교회가 들어서서 동네사람들은 물론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어쩌다 부활절이 되거나 성탄절이 되면 달걀과 떡, 과자를 얻어먹기 위해 나는 누나들을 따라 교회에 갔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좋으나 절대로 깊게 믿지는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던 나는 텔레비전을 공짜로 보기 위해서라도 자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 인왕산 그룹산책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천연회원들

그렇게 얼떨결에 신앙을 갖게 된 나는, 얼마 전 서울 용산에 있는 성심여자중학교에서 1일 직업 체험교사를 한 적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학생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기로 했다. 약속된 날에 커다란 ENG 방송카메라와 마이크를 준비해 갔다. 먼저 수업을 진행하는 후배기자와 학생들의 모습을 스케치 형식으로 촬영해 교실에 걸려있는 모니터에 틀어 줬다. 자신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걸리자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스스럼없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나는 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다. 수의사, 기자, 가수, 연기자, 교사, 심리치료사, 방송국 PD 등 꿈들이 참 다양했다.

_42-‡»` 5 1904.1.1 8:15 PM ˘ ` 21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나의 이런 대답과 관련해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이라는 권고문에서 "다른 이들의 선익을 추구할 때,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바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생각해보니 내 꿈도 시시때때로 변하고 다양하게 많았던 것 같다. 가난한 시골 출신인 내가 처음 갖게 된 꿈은 하얀 쌀밥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다. 좋은 장난감도 갖고 싶었고, 검정 고무신을 벗어버리고 운동화를 신어보는 꿈도 꿨다. 서부영화에 나오는 쌍권총 둘러메고 들판을 마음껏 달려보는 카우보이를 꿈꾸기도 했다.

중 ·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국사선생님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우연히 텔레비전 속에서 만난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보고 첫 눈에 반해 그 길로 성악가가 되겠다며 부모님을 조르기도 했다. 그러다 고인돌을 발굴하여 돌도끼 돌칼 등을 찾아내는 사촌형을 만나고서 나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멋진 고고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고고학도의 꿈을 안고 들어간 대학박물관 생활은 적성에 딱 맞는 듯했다. 보람도 있고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군복무를 마치고 3학년에 복학해 1학기 말 고사를 한 달 앞둔 때였다. 큰누나에게 갑작스런 변고가 생겼다. 나는 생사를 넘나드는 큰누나를 보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간절한 기도를 바쳤다. "누나를 살려달라고, 누나만 살려 주시면 뭐든지 다할 테니 제발

▲ 서로를 알게하고 보다 친밀해지기 위해 함께 남한산성을 오르는 모습

살려만 달라"고 몸부림쳤다. 나의 기도는 큰누나를 기적처럼 죽음 앞에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누나는 보름 만에 다시 자리에 눕고, 하느님은 누나를 영원히 데려가 버리셨다.

진정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망했고 분노했고 처절하게 증오했다. 내 앞에 보이는 예수쟁이는 모두 사기꾼이었고 악마였다. 그렇게 멍들고 병든 가슴으로 방황하던 나를 하느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부모님은 나를 성전으로 인도하셨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목소리는 나의 울분과 분노를 씻어내셨고 감

_42-‡»` 5 1904.1.1 8:15 PM ˘ ` 22 G4ˆ•´ PS IN 2750DPI 300LPI T

◀ 예수님은 늘 나누셨다. 나눔을 하는 천연회원들

사의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느님 체험을 통하여 대학 3학년 겨울 무렵 스스로 천주교로 개종했다.

대학졸업 후 취업을 걱정하며 두렵고 배고프고 어둡던 그 '광야 같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은 내 신앙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누나의 병상에서 약속했던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며 살아가도록 방송을 통한 선교사로 미약한 나를 뽑으시고 이끌어 주셨다. 깊지 않은 신앙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에 근무하면서 무엇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 하느님을 위하는 길인가 늘 고민하였다.

그러던 차에 오래전부터 시집 · 장가를 보내야 할 아들, 딸을 두신 어머님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혼인을 해 '성가정'이 되게 도와달라는 즐거운 청탁을 자주해 오셨다. 생각해보니 결혼 전에 배우자에 대해 잘 알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결혼생활에서 겪게 되는 갈등도 줄이고 더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천주교 신자인 미혼남녀에게 배우자를 소개해 주는 일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 10여 년의 구상이 결실을 맺어 올해 3월 '성가정 커플 만들기 프로젝트-천연(天緣)'을 오픈했다. '천연'은 하느님이 맺어주신 인연, 천주교 신앙으로 맺어진 인연,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길 바라는 뜻이다.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만으로 '천연'은 운영되고 있고, 사제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기도로 응원해주며 함께 해주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천연'이 정말 무료인지, 왜 돈도 되지 않는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믿으시면 공짜이고, 안 믿으시면 유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가끔 "박광수 프란치스코! 네 꿈은 뭐야?"라고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그 질문들에 대한 나의 대답은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쁜소식을 전하는 것",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착한 자식 되는 것",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나의 이런 대답과 관련해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이라는 권고문에서 "다른 이들의 선익을 추구할 때,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바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풍요로운 결실은 흔히 눈에 보이지 않고 알아채기 힘들고 양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실패나 부족한 결과를 두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내 삶의 봉헌은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교황님의 이 말씀은 때때로 흔들리는 내게 "더욱 용기를 내어 예언자적 소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들어온다.

_42-‡»` 5 1904.1.1 8:15 PM ˘ ` 23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은 언제부터 지냈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뻐하며 들떠 있을 때, 교회는 슬픈 사건 하나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12월 28일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쪽 나라에서 온 현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몰라 수소문하다가 헤로데 왕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던 헤로데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지나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고민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는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나이 어린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물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미 이집트로 피신한 뒤였습니다. 본인의 깜냥으로는 후환의 조짐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기려 왔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존이 그 옛날 모세의 경우와 비슷하다는 점, 즉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태어났고 그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을 면했다는 것이 닮은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무튼 베들레헴의 아기들은 예수님을 대신해 목숨을 잃은 것이기에 진즉에 최초의 순교자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일을 정해서 지냈습니다. 그 기원은 505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사용하던 교회 달력에 처음 나타납니다. 하지만 유럽의 오래된 성당의 벽화나 성경책의 삽화에 이 사건이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순교 축일은 아마도 그 이전부터 기념되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이 축일을 금식과 애도의 날로 정해서 지냈습니다. 부모가 잠자리에 든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리며 무죄한 어린이들의 고통을 상기시켰다는 것입니다(아마도 매질은 시늉만 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날을 성탄 축제의 연장선상에서 웃고 떠들고 놀면서 지냅니다.

그 축일이 12월 28일인 것은 예수 성탄 대축일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일이 지나면 26일에 스테파노 부제의 순교를 기리고, 27일에 요한 사도의 순교를, 그리고 28일에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를 기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축제로 지내는 한 주간에 이렇듯 의미 있는 축일이 몰려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새겨 보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석규
(가톨릭출판사 문화총서 편집간사, CBCK교육위원회 위원)

_42-‡»` 5 1904.1.1 8:15 PM ˘ ` 24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신앙에 물주기 | 나눔 편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담당사제)

올해는 교황청이 선포한 '신앙의 해'입니다.
계간 〈평신도〉에서는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굳건한 믿음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신앙의 해 특집 – 신앙에 물주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말씀과 전례, 기도와 나눔을
통해 성장합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님의 연재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현존하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신앙의 해 특집 – 신앙에 물주기' 글 싣는 순서
* 봄 —— 말씀 편
* 여름 —— 기도 편
* 가을 —— 전례 편
* **겨울 —— 나눔 편**

부모는 자식이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도 당신 자녀인 우리들이 가까이에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에로 초대하시는데, 이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상황이 좋은 안 좋든 상관하지 않고 이 응답에 지속적으로 충실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주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도를 통해 꾸준히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성실하게 성사에 참여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고 하느님과의 친교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절친한 친구끼리는 서로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과의 친교가 돈독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닮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아 우리 역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사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하느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에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훌륭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음식과 옷을 받는 것보다는 그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극진히 사랑

_42-‡»` 5 1904.1.1 8:15 PM ˘ ` 25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마르 12,29-31). 사도 요한 역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1요한 4,21)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135)은 "믿음은 시작이요 사랑은 마침이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공허한 것이 되기에 사도 바오로는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갈라 5,6)이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야고 3,17)

신앙이 성숙하여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가진 바를 기꺼이 나눕니다. 이런 모습을 예루살렘의 첫 신자 공동체에서 나타납니다.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사도 2,45) 이렇게 참된 사랑은 구체적인 나눔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시대는 돈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모으는 데에 열중하고 나누는 데에 인색합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적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나눔은 이 시대의 탁월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눔은 여유 있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바를 쪼개서 줄 때 나눔은 더욱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교회의 오랜 관습대로,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사목헌장」88항)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 사랑을 절실히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인은 이웃 사랑, 특히 사랑의 나눔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은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나눈다면, 그 나눔으로 도움을 받은 이들은 하느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몹시 추운 12월의 어느 날 뉴욕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맨발의 어린 소년 하나가 이가 딱딱 부딪칠 정도로 심하게 추위에 떨면서 신발가게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측은하여 한 부인이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뭘 그리 뚫어져라 보니?" 소년이 부끄러운 듯 대답했다. "저는 지금 하느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자 부인은 소년의 손

_42-‡»` 5 1904.1.1 8:15 PM ˘ ` 26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은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나눈다면, 그 나눔으로 도움을 받은 이들은 하느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우선 여섯 켤레의 양말을 주문하고 세숫대야와 수건을 빌려서 가게 뒤편으로 소년을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소년의 발을 씻긴 뒤 수건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원이 가지고 온 양말 중에서 한 켤레를 소년의 발에 신겨 주었습니다. 부인은 신발도 여섯 켤레 사주었습니다. 남은 신발과 양말은 흩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서 소년의 손에 꼭 쥐어 주고 어깨를 두르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부인의 손을 꼭 잡더니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소년은 눈에 물기를 가득 머금고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하느님의 부인이에요?"

우리 모두 '하느님의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하느님의 발이 되어 그분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또한 많지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분의 축복과 구원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1582)는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당신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눈이 세상을 바라본다. 당신의 발로 그리스도는 좋은 일을 하러 나간다. 당신의 손으로 그리스도는 축복을 준다."

현대인들은 진정성이 느껴질 때, 바꿔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말로써 신앙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성숙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인도에서 평생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마더 데레사(+1997)나, 톤즈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다가 간 이태석 신부(+2010)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느님이 사랑이시다고 외치면서 그와는 정반대로 사는 모습, 자기 혼자만 구원받을 것처럼 우쭐거리고, 무신론자나 다른 신앙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과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신앙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7)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_42-‡»` 5  1904.1.1 8:15 PM  ˘  ` 27 G4ˆ•´ PS IN 2750DPI 300LPI T

12월의 엽서

이해인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 하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남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이를 용서하면 그것 자체로 행복할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 하게 해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_42-‡»` 5 1904.1.1 8:15 PM ˘ ` 28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성탄의 의미

오창익 루카 (인권연대 사무국장)

성탄이다. 성탄은 역시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게 중요하다. 어렸을 적엔 비록 산타할아버지의 선물 때문이겠지만, 흠뻑 느낄 수 있었다. 나이 탓일까. 왜 느낌이 잘 안 오는 걸까. 11월부터 거리에 크리스마스트리가 등장했지만, 느낌은 영 아니다. 대림시기를 거쳐도 마찬가지다. 그저 심드렁한 풍경일 뿐이다. 매년 그저 그렇다. 느낌이 신통치 못한 탓일 게다.

성탄의 의미야 많이 들었다. 하느님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낮은 곳에 왔다. 제대로 된 방도 아니었다. 산모 구완을 맡아줄 산파도 없었다. 고향도 아닌 곳, 뿌리 내리지 못하는 디아스포라의 출산이었다. 주몽이나 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고, 현실 정치인 케사르(카이사르)도 집권세력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명문 귀족 출신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는 왕자였다. 유독 예수의 탄생은 초라하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다. 유아세례 이후, 초등, 중등 과정의 주일학교를 다니며 자주 들었던 이야기다. 그래서 성탄에 대해 안다고 말하는 건 조금도 과장된 게 아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느끼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은 다르다. 안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 느낀다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다. 성탄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 땅의 현실은 예수가 태어난 그 시절처럼 고단하기만 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새로운 유형의 가난도 힘겹지만,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게 더욱 힘들다.

어떤 가수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라 했다. 손끝, 발끝이라도 아픈 곳을 그냥 뒀다간 온 몸이 썩어 들어가 마침내 목숨을 잃게 된다. 대개 머리나 심장, 또는 단전이 몸의 중심이라 여기지만, 실제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그래야 살 수 있다. 한 아기는 비천한 신분, 떠돌이 신세, 말 먹이통에 누운 신세였지만, 작고 나약한 존재이기에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성자의 권위 때문이 아니다.

그 작고 나약한 존재의 탄생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고, 예수의 가르침 이전에 초라한 아기의 출생이 있었다.

우리 주변에도 비천한 예수는 널려 있다. "무관심의 세계화가 우리에게서 슬퍼하는 능력을 제거해버렸다"는 교황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느낌으로 그들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다. 한 대학교의 일이다. 이 학교의 이름은 꼭 거명해야 하겠다. 인권의 무기는 고작해야 '거명하며 창피주기(Naming & Shaming)' 뿐이니. 광운대학교. 이 학교 청소노동자의 딸이 암투병을 하다 죽었다. 임종시간은 새벽 1시 반. 어미는 딸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학교에 나왔다. 새벽 3시. 그가 맡은 청소를 다 끝낸 다음에야 딸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청소노동자들이 노조

_42-‡»` 5 1904.1.1 8:15 PM ˘ ` 29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아픔, 목소리조차
새어나지 않는 속울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다
그걸 느끼라는 게 바로 성탄의 온전한 의미다.

를 만들고 대학 총장실을 점거하고 나서야 이런 일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디 한둘일까. 그 청소노동자의 아픔도 세상의 중심이어야 했다. 신화적 요소를 거두고 보면 역사적 예수의 탄생은 그 부모, 딱 두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이었을 게다. 비천한 사람들, 뿌리 뽑힌 사람들의 나고 죽음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자들의 태어남이고 삶이고, 죽음이다.

가난한 사람의 처지는 늘 고약하다.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이 매년 4만명이 넘는다. 벌금, 과태료 등의 범칙금 등의 세외(稅外) 수입을 늘려 창조경제를 만들겠다니, 올해엔 4만명을 훌쩍 넘을지도 모른다.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다. 격리해야 할 만큼 위험해서도 아니다. 그저 돈 대신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자체로 징벌이다. 죄 없는 사람들이 죄를 받고 있다. 1년 동안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을 구하려면 연간 2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그 엄청난 돈을 감당할 능력이 교회에는 없다. 하지만 제도를 좀 더 인간적으로 고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이런 일에 관심을 보이는 교회 사람들은 거의 없다. 들리지 않는 깊은 속울음이기에 듣지 못한 탓일 게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니 그럴지도 모르겠다. 예수의 탄생도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아픔, 목소리조차 새어나지 않는 속울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다. 그걸 느끼라는 게 바로, 성탄의 온전한 의미다.

교회의 활약이 다른 종단에 비해 눈부신 건 사실이다.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헌신이 돋보인다.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눈부신 활약에서 평신도들의 자리는 별로 없다. 수도 · 성직자만의 교회도 아닌데, 세상에 대한 외침, 헌신과 봉사는 오로지 수도 ·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평신도들은 멀찍이 떨어져, 그저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학습(學習)이 아니다. 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익힘은 없다. 역동적인 성직자, 수도자들처럼 평신도들의 활동도 보다 더 역동적이었으면 좋겠다.

사회교리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이념과 원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평신도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 자칫 관념에만 머물 수 있는 사회교리를 풍성하게 하고, 현실적 상상력을 담아 재구성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평신도들에게 있다.

성탄은 새로운 시작이다. 고단한 세속의 삶을 온몸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평신도들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느끼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으면 한다. 사회교리를 수동적 입장에서 그저 듣기만 하는 데서 벗어나, 사회교리의 실천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변화, 곧 아픈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이 우리 평신도들의 몫이었으면 좋겠다.

_42-‡»` 5 1904.1.1 8:15 PM ˘ ` 30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신앙을 위해 피흘린 선조들을 생각하며

방관석 비오 (금호동 선교본당)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는 우리 형제들에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거라' 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일의 만과, 매괴신공 때나 명절 등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조상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의 고조할아버지가 병인박해 때 순교하셔서, 더 이상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던 고조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그 때문에 일곱 살 다섯 살 두 아들을 데리고 유랑 걸식하던 고조할머니가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는 아픔마저 겪어야했던 이야기, 스물여섯 살의 지아비를 해미순교지에서 자리개질로 잃고, 홀로 어린 자식을을 돌보고 박해의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고조할머니의 고통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어린 나이에 듣고 있었지요.

어릴 때 병인년 박해에 대한 이야기는 천주교 수난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밖에는 없었던 때, 그 누구도 말 해줄 수 없는, 아버지만이 말씀해 주시던 역사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역사였고, 귀로 듣고 익혀야 했던 가족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고조할아버지가 순교하시던 나이의 두 배를 넘어 살았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당시의 그분과 부인과 자식들을 생각해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그분들에 비해 얼마나 약한가를 생각하며 힘든 일상을 버티어냅니다.

"성실 근면 정직" 이것이 내가 정한 집안의 가훈이다고 하시던 아버지께 '뭔 가훈이 교훈 같아' 라고 했던 내게 "우리 집안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훈을 잃어버린 집안이란다"고 하시면서 다시 들려주던 이야기들.

마을과 문중에서 쫓겨나 살아남기 위해 견뎌야 했던 시간들에서 예전의 어떤 것인들 남아있겠어요.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8남매를 성실하고 근면, 정직으로 키워내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둘이 대전교구의 신부가 되었을 때, 순교자이신 당신의 선조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내게 당부하시던 말씀이 하나있었습니다.

"모든 신부님은 형님이나 동생처럼 생각하고 도와 드려라."

아마도 당신의 아들 신부들과 그 동료들이 똑같이 모두 귀하고 사랑스러우셨나 봅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그 뜻을 열심히 지키고 살려고 합니다.

나의 두 아이들은 순교자의 자손답게 성당에서 활동을 잘하는 아이들로 살고 있습니다. 고조할아버지께서는 아마도 5대손 자식들이 기쁜 마음으로 활동하는 것을 흡족한 웃음으로 지켜보시겠지요. 당신의 시대에는 꿈도 못 꾸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순교자 방영창 안토니오님! 저의 고조할아버

_42-‡»` 5  1904.1.1 8:15 PM  ˘  ` 31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해미순교자 순교기념 전시관에
등록되어 있는 순교자 명단

지! 우리 아이들의 5대조 할아버지! 당신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기억합니다, 당신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뜻을 후손에게 영원히 기억시키며, 뜻을 따라 살게 가르치겠습니다.

이젠 돌아가신 아버지, 지난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난 형님신부님(난 작은형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이니까요), 모두들 살아계신 듯한 이런 마음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주 말씀해 주시던 순교자와 선조들에 대한 말씀들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항상 삶 속에서의 대화였으니까요.

"나의 아들 딸아! 너희들은 순교자의 후손이며 하느님의 축복받은 자녀란다. 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와 너의 엄마가 너희를 하느님 사랑으로 키웠단다."

이젠 너희들이 이어갈 때가 되었다. 그때가 되면 또 너의 자식들에게 자랑스런 조상님들 이야기를 해주렴. 항상 하느님 앞에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의 선조들이라는 이야기를.

올해가 저물기 전에 다시 한 번 아이들과 함께 해미성지로 고조할아버지를 뵈러 가야겠습니다. 고조할아버지는 저희들이 자주 오는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방영창 안토니오**

온양 방씨로 부인과 일곱 살, 다섯 살 난 두 아들과 내포지방 양촌(현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궁리)에서 농사를 짓던 중 병인박해가 일어나 1866년 11월 체포돼 해미성 서문 밖 하수구 돌다리 위에서 자리개질로 순교했다.

자리개질은 군인 네 명이 죄수의 팔다리를 각각 하나씩 잡고 '어영차' 하는 구호 소리에 맞춰 높이 들었다가 세차게 돌다리 위에 매쳐 단 번에 머리를 박살내는 잔인한 사형 방법이다. 이렇게 순교한 해미순교자들은 성 밖에 아무렇게나 쌓였다가 개천에 버려졌다.

당시 자리개질 현장의 하수구 돌다리는 지금 서산본당 정문 앞에 순교돌로 세워져 있으며 아직도 순교자들의 피가 돌 속에 배어 있어 붉은 흔적이 남아 있다.

_42-‡»` 5 1904.1.1 8:15 PM ˘ ` 32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땅과 밥상, 사람과 세상,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 우리농 운동

이상식 대건 안드레아
(가톨릭농민회 회장)

1966년에 창립된 가톨릭농민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과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농민들의 자발적 자주적 모임이다. 농민 스스로의 각성과 협동으로 생명존중과 공동체적 삶의 실천을 통해 농업 · 농민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과 겨레의 복음화,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달려왔다.

근대화로 상징되는 1970년대, 농민회는 척박해지는 농촌과 농민의 삶을 지키고자 '농민의 권익 보호운동'에 힘을 실었다.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시대인 격동의 1980년대를 자랑스럽게 보내고, 지금 가톨릭농민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생명 중심의 세계관 확립하고, 생명농업을 실천하여 한국형 농업 발전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1994년 춘계 주교회의에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결정하여 농업문제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도시와 농촌이 모두 함께 더불어 살며 모두를 살리는 '도 · 농생명공동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기초조직인 분회를 복원, 건설하여 계통조직체계를 정립하고 생명공동체운동의 실질적 토대이자 실현지로 육성해 나가며, 도시에서는 도시생활공동체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 도시생활자들이 단순한 물품소비를 통한 관심과 참여, 봉사를 넘어 생활양식 자체를 생명공동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생명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생명이며, 문화이며, 국토생태계 보전에 있어 핵심적 요소다. 도시와 농촌의 굳건한 공동체 연대활동이야말로 우리 농업의 자립을 견고하게 하고, 땅과 생태계를 회복하여 사람과 사람,

_42-‡»` 5 1904.1.1 8:15 PM ˘ ` 33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농민은 하느님을 닮은 착한 생태사도이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창조질서를 지키고 있음을 깨달아 참농민, 참사랑, 참세상을 만들고…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임을 확신한다.

이를 토대로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는 식량자급농업, 남북 농업협력을 통한 통일 대비 농업, 농민과 도시생활자가 함께하는 협동적 지역농업, 자연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유지,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다.

“농민은 하느님을 닮은 착한 생태사도이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창조질서를 지키고 있음을 깨달아 참농민, 참사랑, 참세상을 만들고, 삶과 믿음을 일치시키고 생명의 교회를 건설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016년이 되면 가톨릭농민회는 50주년을 맞는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촌, 농업을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좌절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운동이 되고, 역사 안에서 농민이 힘이 되어 함께 지켜온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가톨릭농민회로 거듭나고자 한다. 많은 이들이 우리 가톨릭농민회의 ‘우리농’ 생명농산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_42-‡»` 5 1904.1.1 8:15 PM ˘ ` 34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나눔의 경제로 희망을 전파하는 경제전문가

곽수종(제미노 53). 그의 이름 뒤에는 항상 '경제 전문가'라는 직함이 붙는다. 연세대 경제학과, 미 캔사스 주립대 경제학 박사, 캔사스 주정부 경제정책실 책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TV와 라디오의 경제프로그램 진행자.

나라 안팎의 경제 흐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요즘 '경제 전문가'라는 수식어는 안경을 낀 깐깐한 인상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만난 그는 배낭을 메고 운동화를 신은 소탈한 옆집 삼촌 같았다. 세상의 흐름에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은 그에게도 기대고 싶은, 매달려야 할 '신앙', 종교가 필요할까? 그런 거 없어도 큰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

하지만 달랐다. 그는 자신이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느님 뜻'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그러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한 인간으로서나,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곽수종 박사와 나눈 일문일답. 박진주 안젤라 편집위원

하느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제게 종교는 할머니와 함께 다녔던 절이 전부였습니다. 저의 손을 잡고 할머니는 산을 올라 절에 가시곤 하셨습니다. 산이 주는 푸른 기운과 고즈넉한 절 풍경, 멀리서 들려오던 목탁소리가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종교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던 제가 하느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어찌 보면 매우 엉뚱합니다. 대구가 고향인 제가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연희동에서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주인 아저씨는 당시 연희동 성당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독실한 천주교인이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과 함께 가톨릭 소식지도 만드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지금의 아내와 한창 연애를 하던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밤 10시가 하숙집의 통금시간이었는데, 놀다보니 시간이 늦어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무모하게 담을 넘었는데, 주인 아저씨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제부터 성당에 나갈 테니 용서해 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가게 되었고, 바로 예비자 교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세례식 때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신부님이 성수를 뿌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어떤 슬픈 기억이 떠올랐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장면을 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제 생애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성수가 뿌려지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전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느낌도 들었고,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기분이 들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제 대부님이 저를 성당으로 인도하셨던 하숙집 주인 아저씨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견진성사도 받았습니다. 견진 대부님

_42-‡»` 5 1904.1.1 8:15 PM ˘ ` 35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역시 하숙집 주인 아저씨였고요.

세례와 견진 두 개의 성사를 받고, 또 특별한 인연의 대부님 덕택에 제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고집 세고, 잘난 줄만 알았던 제가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배를 하게 됐다고 할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성숙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종교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더군요.

지금까지 50년 조금 넘게 살아오면서 제 뜻대로 된 일은 정말이지 하나도 없더군요. 젊은 시절, 미국에 유학을 갔던 것,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것, 한국에 돌아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 외환위기가 왔을 때 미국으로 가서 아이들과 아내를 돌봤던 것, 2005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 들어갔던 것, 그리고 퇴사했던 것,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제가 뜻해서 이뤄졌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점을 찍으며 지금까지 왔는데, 훗날 돌이켜보니 그 점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느님이 계획하셨던 일과 닿아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하느님이 뜻하신 모습으로 이뤄져 나갈 것이기에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이나 슬픔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곧 성탄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있으신지요?

안타깝게도 기억에 남는 성탄절은 없네요. 그렇지만 아쉬운 성탄절은 있습니다. 매 성탄절이 그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 앞날만 바라보고 달리느라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었고,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느라고 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가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장면을 접하면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버거워하는 가장이 많잖아요.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 늦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알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살기도 편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취업난과 스펙 경쟁,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는 젊은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마태오 복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물을 짜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전혀 망설이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물을 짜던 어부는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목표나 희망이 없었지요. 그렇게 매일같이 같은 일을 하고, 희망이 없던 베드로에게 다음 생애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고대에는 사후세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스 신화에도 신과 인간을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는 이 개념이 바뀌게 되었죠.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움을 주시면서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웃과 나누며 이웃을 위해 살다보면 나중에는 행복해질 수

_42-‡»` 5 1904.1.1 8:15 PM ˘ ` 36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제가 살아오면서 수 많은 점을 찍으며 지금까지 왔는데, 돌이켜 보니 그 점들이 연결되어 주님이 계획하셨던 일과 닿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이 하느님이 뜻하신 모습으로 이뤄져 나갈 것이기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있다는 희망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사적으로 볼 때 더할 수 없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인간에게 던진 메시지는 다름이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다음 생애가 있기 때문에 다음 생애를 위해서 그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을 전하신 겁니다.

좀 돌아왔지만, 저는 젊은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점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들이 구하고자 하는 답은 먼 곳에 있는데, 그들은 가까운 곳에서만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당장 보기 좋은 직장을 구하려 하고, 가까운 미래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혹은 후년에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당장 2014년만 해도 청년들에게는 2013년보다 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종교적인 가치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좀 더 위로가 되는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 청년들이 부르짖던 시대가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웠지만 당시에는 종교가 청년의 방패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의 고뇌와 아픔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종교가 충분히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 시대가 찾아왔죠. 그런데 오히려 젊은이들의 변하지 않는 고민인 '돈, 사랑, 명예, 철학' 등에 대해서 지금의 종교는 크게 어루만져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현대화를 겪어면서 물질 만능주의 풍조가 팽배해지고, 그 위에 종교가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에 천주교회가 면죄부를 팔았는데요,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삶에는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행복은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면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고 그 위에 하느님의 존재가,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젊은 친구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힘든 사람이 참 많아요. 하지만 잘난 사람들은 잘난 척을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마냥 힘든 세상입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힘든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더 없죠. 이럴 때일수록 천주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위로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더욱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_42-‡»` 5  1904.1.1 8:15 PM  ˘  ` 37 G4ˆ•´ PS IN 2750DPI 300LPI T

갈참나무의 눈꽃

정두리 세라피나

갈참나무에 내리는
눈을 보셨어요?
그 나무의
떨리는 나무결을 만져 보셨나요?
눈을 받으려고
가으내 지녔던
나뭇잎 모두 버리고
두 팔 벌리고
부끄럼을 접어두고
기다렸던 나무

눈이 내리기 전
하늘이 먼저 내려오면
갈참나무는 기다림에 절어 그대로
벌 받는 아이처럼 떨고 있던,
나무의 사랑을
누가 흉내 낼 수 있을까요?

나무와 눈이 투합해서 피워낸
갈참나무 하얀 꽃을
그들이 잡은 손 놓을 때까지
지켜볼 거예요
돌아갈 생각 없어진 지금
나는 그럴 수밖에요

_42-‡»` 5 1904.1.1 8:15 PM ˘ ` 38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하느님 보시기 무척 불쾌하시리

박병상(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참 정확하다. 하느님이 보호하신다는 게 아닌가. 예나 지금이나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복닥거리지만, 살아가는 데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지만 그런 거 없는 나라가 있었다던가. 저장해둔 쌀이 겨우내 떨어지고 보리가 익기 전까지 배고플 정도였지만 수탈되던 일제 강점기에 심했지 그 전엔 일상적 현상은 아니었다. 3면이 해산물 풍성한 바다이고 서해안의 너른 갯벌에서 온갖 어패류가 날이면 날마다 즐비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비좁은 땅덩이에 모인 조상이 4천 년 이상 고유의 말과 글, 문화와 역사를 평화롭게 가꾸어온 지역이 이 땅 말고 어디 더 있었던가. 하느님이 보살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는데, 이젠 과거가 되었다. 전보다 분명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뭔가 모르게 불안하다. 음식쓰레기를 해마다 20조 원어치나 버리고 에어컨과 승용차를 자랑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윤택해졌지만, 내일이 오늘 같을 거라 믿지 못한다. 협동보다 경쟁으로 생존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 공전과 자전을 하므로 모든 강은 구불구불 흐른다. 국토 중 65%가 경사 깊은 산악이고 내리는 비가 여름 한 철 쏟아져도 맑고 차가운 물이 사시사철 흐를 수 있었던 건, 강물과 화강암 모래가 더불어 흘렀기 때문이다. 이제 그 강물이 멈췄다. 강은 해마다 한 번 이상 범람하고 한 차례 가물었기에 생태계가 그때마다 열리며 순환되었다. 가장 늦게 동참한 사람도 그런 강에 삶을 기댈 수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4대강 사업으로 물줄기가 거대하게 틀어 막혔다.

봄이면 뱀장어, 가을이면 연어와 은어가 바다에서 강 상류로 올라오며 알을 낳고, 폭포가 깊게 파놓은 소, 커다란 바위가 겹친 계곡, 급류가 물거품을 일으키는 여울, 호박돌이 흩어진 중류, 그 가장자리의 자갈과 모래톱, 바다와 넓게 만나는 삼각지. 그 생태계마다 다채로운 생물상이 궁극으로 펼쳐졌지만, 이제 볼 수 없다. 지느러미에 찔리면 몹시 아프게 만들었던 퉁가리는 오랜 터전을 잃었다. 가장자리 자갈 틈의 퉁가리와 모래톱의 모래무지가 사라진 4대강에 모래와 자갈이 멈추며 썩으면 피라미와 붕어도 자취를 감출 것이다. 백로와 흑두루미도 떠날 것이다.

다채로운 생물이 어우러지던 생태계에 가장 늦게 찾아온 사람은 자신만의 편의와 탐욕을 위해 자연의 이웃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의 출현으로 성층권에 오존층이 생기자 자외선이 두려운 생물들이 물 밖으로 나와 다채로워졌는데, 계절의 순환을 뒤집는 냉매는 오존층을 거대하게 뚫고 말았다. 자동차와 공장, 그리고 대형 건물과 화력발전소에서 마구 내뿜는 온실가스는 지구를 데워 빙하를 녹인다. 지구온난화는 태풍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해안은 걷잡기 어려운 해일

_42-‡»` 5 1904.1.1 8:15 PM ˘ ` 39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다채로운 생물이 어우러지던
생태계에 가장 늦게 찾아온 사람은
자신만의 편의와 탐욕을 위해
자연의 이웃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이 빗발치지만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는다. 생명체의 타고난 면역력을 약화시켰다.

석유는 자동차 사회를 만들었는데, 석유로 가공한 화학비료와 농약은 돈 많은 국가의 가난한 비만 인구와 가난한 나라의 굶주리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렵게 늘렸는데, 어느새 고갈을 눈앞에 두었다고 한다. 늘어난 인구는 이제 어떡하나. 석유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한없이 만들어낸다. 썩어야 미생물이 번성하고, 미생물이 번성해야 식물도 동물도 다채로운 생태계를 지키며 건강하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생태계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크고 작은 플라스틱들은 도무지 썩지 않는다.

세탁기에 들어간 합성섬유의 옷 한 벌이 뱉어내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은 대략 1500개라고 영국의 한 연구자가 밝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와 입으로 들어와 호흡과 소화를 방해하는 그 플라스틱은 세탁기 한 대에서 해마다 얼마나 나올까.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세계는? 물고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라스틱이 사람을 피할 리 없다.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어장이 늘어난다는데, 그럼 인간은 물고기 대신 쇠고기 먹을까? 유전자를 조작해 만든 사료를 먹인 소와 돼지와 닭과 오리, 심지어 양식 물고기까지. 안심할 수 있는 건 점점 드물어진다. 하나같이 생태계의 청지기가 되길 하느님이 기대했던, 바로 인간이 저지른 짓이다.

지구에서 최초 생물이 30억 년 전에 태어났는지, 38억 년 전인지 확실히 모른다. 그 먼 이야기를 인간의 과학이 어찌 정확히 알겠는가. 하지만 분명한 건, 최초로 태어난 생물은 한참을 조용히 지내다 나중에 창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다와 땅과 하늘에 방사능이 충분히 줄어든 이후의 일이었다. 신출내기 과학자 타카지 진자브로오는 깨끗했던 남극의 빙하가 20세기 중반부터 방사능으로 하염없이 오염된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뇌리에 생태계 멸종이 스친 젊은 과학자는 안락한 연구원과 교수 자리를 박차고 반핵운동의 선두에 섰다. 고단한 행동을 멈추지 않은 그는, 그만 과로로 숨졌다. 그는 천국에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자연스레 창조된 생태계를 그 모습 그대로 지켜야 할 책무를 안고 인간이 태어났다고 가톨릭은 가르친다. 하지만 무슨 청지기가 저와 제 이웃의 터전이자 기댈 언덕에 독을 마구 뿌릴까. 산과 들에 불을 지르고 물길을 차단해 강을 썩게 만들면서 제 자식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청지기가 어찌 가당하기나 한가. 하느님이 벌을 내리는 존재는 아니겠지만,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터. 무척 불쾌해하실 게 틀림없다. 맑은 정신을 가진 이라면 더 늦기 전에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청지기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_42-‡»` 5 1904.1.1 8:15 PM ˘ ` 40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조지프 T.켈리 지음
박금옥 옮김
성바오로 발행
128x188mm 192면
9,000원

기도, 질문과 답

그리스도교 초기 전통에 따르면 기도는 하느님께로 마음과 정신을 들어 올리는 일 또는 하느님께 좋은 것을 청하는 일이다. 이 책은 이 같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바탕에 두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101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나씩 던짐으로써 개념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 신비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초대한다. 우선 이 책은 기도의 본질을 해석하기 위해 비유로 사용되는 대화, 현존, 기억이라는 세 가지 공통된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사용하는 감성, 지성, 의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세 가지 상호보완적인 인간의 독창력, 즉 주기와 받기, 움직임과 고요함, 내면성과 무아경을 변화시키고 성화하는지 살펴본다. 눈길을 끄는 본문 몇 개를 음미해보자.

Q :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 나의 생각과 느낌들을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정신과 마음속에 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나 기도는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보통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 어렵거나 인정하기 어렵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신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며,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자신에 대해 보다 깊은 진실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된다.

Q : 교회와 같은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는 내 기도를 더 잘 들어 주실까?

A : 아니다.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머무신다. 문제는 어떤 장소와 공간이 우리가 좀 더 기도 속으로 깊이, 더욱 집중하게 도와주는가이다.

Q : 관상이란?

A : 하느님의 현존 안에 단순하게 고요히 머무는 것이다. 묵상은 하느님 또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깊은 성찰과 숙고를 하는 것이며 하느님과의 대화로 절정에 이른다. 관상은 하느님과의 대화를 넘어선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계속 드러나는 궁극적인 개념은 은총이다. 성경적 의미에서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응답이다.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느님께 말씀을 드린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은 끝이 없이 계속되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한다. 모든 기도는 은총에 대한 응답이다.

_42-‡»` 5 1904.1.1 8:15 PM ˘ ` 41 G4ˆ•´ PS IN 2750DPI 300LPI T

가톨릭 신자라면 어쨌든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등 기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신자들을 위해 가톨릭출판사가 '기도의 ABC'를 출간했다. 이 책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했던 이들,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누구에게, 왜 하는지 잘 몰랐던 이들이 가졌던 궁금증을 풀어 주고, 자신에게 맞는 기도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인 대전교구 한광석 신부는 하와이에서 교포 사목을 하며 신자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을 목격했다. 한 신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신자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고, 특히 그들이 자주 하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마음에 앙금으로 남았다고 한다.

그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갈해주기 위해 나온 이 책에는 가톨릭교회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도에 대한 기본과 핵심이 담겨 있다. 저자는 기도에 대한 신학적 성찰보다는 독자들이 일상 중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느님을 마음에 담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일 기도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책은 세 장으로 나누어진다.

A장에서는 기도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며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등 기도의 정의와 목적,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B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도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가르쳐 준다.

C장에서는 기도를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까지 아울러 실제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기도의 ABC'에는 간결하면서도 감수성을 자극하는 정감 어린 그림으로 여러 SNS 매체에서 인기몰이 중인 임의준 신부의 삽화가 곁들여져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임 신부의 작품들이 실린 기념비적인 첫 단행본으로서 발간되기 전부터 많은 신자들이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 왔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다음과 같은 추천의 글을 통해 일독을 권한다.

"기도가 혀에서만 맴도는 기계적인 소리의 반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느님에게 무엇인가를 더 달라는 칭얼거림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신비 체험에 관한 욕심에 사로잡혀 정신과 건강, 그리고 신앙을 해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한 신부님의 책을 펼치고 신비 정원의 이곳저곳을 지치지 않고 정진하여 궁극적인 신비의 세계에 다다르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선동 편집위원

한광석 지음
임의준 그림
가톨릭출판사 발행
140x205mm 264면
10,000원

기도의 ABC

_42-‡»` 5 1904.1.1 8:15 PM ˘ ` 42 G4ˆ •´ PS IN 2750DPI 300LPI T

마르크 샤갈의 '인간의 창조'(The Creation of Man)

마르크 샤갈의 '인간의 창조'(The Creation of Man)
1956~1958년, 캔버스 위에 유화, 300x200cm, 샤갈미술관, 니스, 프랑스

서양미술사상 '색채의 마술사'라는 별호가 의미하듯, 화사하면서도 감미롭고 부드러운 색채로 사랑에 젖은 연인들의 감정을 그린 화가가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이다.

그의 따스한 화필은 성서이미지의 표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그의 '인간의 창조'는 샤갈 특유의 아름다운 색의 조화는 물론이거니와 하느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샤갈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그림 아래에는 인간을 안고 있는 천사가 보이는데,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천사가 지상으로 데려온 것이다. 그리고 천사는 순박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자기 임무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묻는 것 같다. 무엇을 물었을까?

그의 시선을 따라 그림의 위로 올라가면 복잡한

_42-‡»` 5 1904.1.1 8:15 PM ˘ ` 43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형상들이 다채로운 색채 속에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하얀색의 세상인 오른쪽에는 갖가지 색깔의 회오리가 돌아가고, 그 주변에는 많은 인물들이 섞여 있다. 노란색의 세계인 왼쪽도 환상의 세계로 표현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오른쪽 제일 윗부분에서는 천사가 인간을 등에 업고 날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꽃다발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회오리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책을 든 복음사가와 메노라 촛대를 든 제사장 아론, 토라를 든 암소, 우는 예언자 예레미야, 하프를 켜는 다윗왕의 모습이 보인다. 구약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유대인 샤갈에게 이런 형상은 하시디즘에 기초한 것으로, 천지창조의 원리와 연관된 것들이다. 가운데의 붉은 태양은 태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생겨라"이며, 그로 인해 세상만물이 생겨났음을 다채로운 색깔의 회오리가 나타낸다.

이러한 창조의 의지를 보이신 하느님께서 세상만물의 지도자로 급기야 당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그림의 최상단에 위치한 것이다. 그 인간 창조의 원리는 무엇일까?

창조된 인간을 등에 업고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천사는 인간의 창조가 예수님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바로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요, 근원이라는 것을 샤갈이 그림을 통해 나타낸 것이다. 예수님 뒤에 그려진 집은 샤갈의 고향인 러시아 비테브스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의 생을 본보기로 한 자기 자신을 암시한다.

물고기와 비둘기가 나는 행복한 세계, 곧 낙원이다. 구름 속에서 두 손이 나와 창조된 인간이 지상에 가서 지키고 살아야 할 십계명을 전하고 있다. 이 신비로운 창조와 계율의 원리에 천국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천사는 나팔을 불며 축하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신비와 그분께서 친히 주신 계율은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여정을 통해 천사가 창조된 인간을 푸른색의 지상으로 데려온 것이다. 그러니 이 인간은 앞으로 닥칠 유대인의 시련도 감내해야 하며. 동시에 원초적 의무로 주어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천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인간에게 이런 삶의 의무를 잘 전달했는가를 하느님께 묻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아니면 하느님께 그 의무를 다시 한 번 다짐 받을까를 여쭙는 것일까?

여하튼 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참으로 어려운 질곡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창조된 인간을 안은 천사의 왼손 아래에는 악과 죄의 상징인 뱀이 똬리 튼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꽃은 각고의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지지 않겠는가?

악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길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무한한 사랑이라면,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인간의 삶은 결국 고독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는 관계 속에 있을 것이다. 바로 사랑의 대상은 이웃이기에 그렇다. 그 이웃을 위해 자기희생이라는 최고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최초이자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다.

성가정의 진정한 의미가 이것 아닐까? 그래서 샤갈은 이 그림에서 자기의 이름을 적어야 할 오른쪽 하단에 자신과 아내 벨라(Bella), 딸 이다(Ida)가 함께한 성가정의 모습, 신앙 앞에 성스럽고 계율에 순종적인 참된 가정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미술사에서 샤갈만큼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던 사람도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서, 샤갈이 가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 진솔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인간창조의 근원이 자기희생과 사랑에 있기에 그런지, 천사의 품에 안긴 인간의 모습이 정말 희생을 겸허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명하는 모습 그 자체로 보인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

_42-‡»` 5 1904.1.1 8:15 PM ˘ ` 44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옛 시대의 소박한 크리스마스 노래

양인용 아가다 (KBS 1FM 〈새아침의 클래식〉 작가)

세상은 대림 시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크리스마스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떠들썩하게 알려줍니다. 온갖 크리스마스 캐럴과 성탄 음악이 거리에 울려 퍼지죠. 그 음악들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처럼 잘 알려진 클래식 명곡도 더러 있지만,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의 팝송이나 가요 스타일이 주류를 이룹니다. 또한 공연장에서 연주되거나 교회나 성당에서 봉헌되는 음악도 몇 가지 잘 알려진 곡조에 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지난 2000년간 아름다운 성탄 음악이 전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만들어졌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좋아하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아름다운 성탄 노래 두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선곡일지는 모르지만, 부족하나마 덜 알려진 곡들에 대한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l Noi de la Mare – 성모님의 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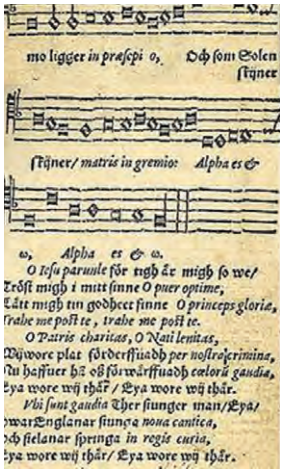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깊은 밤, 빛나는 별을 따라가 도착한 작은 마구간, 어머니 품에 안긴 갓 태어난 아기의 평화로운 얼굴, 그 주위에서 춤추며 경배하는 천사들…. 성모님의 품 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장면이 또 있을까요?

Madonna and Child (Duccio, 14세기 경)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a/Ducciomadonna.jpg

르네상스 시대 카탈루냐 지방에서 불렀던 크리스마스 노래 'El noi de la Mare'는 바로 이러한 평화로운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El noi de la mare'라는 말은 카탈루냐어로, 우리말로는 '성모님의 아기'라고 옮길 수가 있는데요. "성모님의 아기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노래의 작곡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죠.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수백 년을 전

_42-‡»` 5 1904.1.1 8:15 PM ˘ ` 45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해 내려오던 이 노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건 스페인 출신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세고비아가 이 곡을 앙코르 곡으로 자주 연주하면서부터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기타 독주곡으로도 자주 연주가 되고요. 합창곡으로 편곡해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의외로 다양한 편곡 버전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골라 들으셔도 좋을 거 같아요.



http://www.youtube.com/watch?v=QrdpmM-dl3g

http://www.youtube.com/watch?v=ehgi03odYPY

In dulci jubilo – 달콤한 환희 속에서

'In dulci jubilo' 역시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크리스마스 노래입니다. 1400년께 라이프치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필사본에도 수록돼 있는 것으로 보아, 곡조가 만들어진 것은 그보다도 훨씬 먼저일 텐데요. 먼저 소개해드렸던 카탈루냐 지방의 '"El noi de la mare'와 마찬가지로, 역시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성탄 노래입니다. 단 가사에 라틴어와 독일어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독일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노래를 시작하는 'In dulci jubilo'라는 가사는 라틴어로, '달콤한 환희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In dulci jubilo'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해 기쁨에 가득 찬 마음을 표현한 노래로, 아기 예수를 둘러싼 천사들의 춤을 그려내듯, 경쾌한 파스토럴 리듬이 음악을 이끌어갑니다. 이 노래는 독일을 넘어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곡의 가사는 라틴어와 독일어가 섞여 있는 형태지만, 라틴어와 영어 가사가 섞인 악보나, 라틴어나 스웨덴어가 섞인 악보 등 여러 가지 버전이 만들어졌죠.

라틴어-스웨덴어 버전의 'In dulci jubilo'

http://en.wikipedia.org/wiki/File:In_dulci_jubilo.jpg

한편, 처음에는 단선율이었던 'In dulci jubilo'는 세대를 거치며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 다성화되거나 기악화됐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유명한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 역시 4성부의 합창곡과 오르간 독주곡으로도 편곡했을 만큼, 원곡 'In dulci jubilo'는 워낙에 매력적인 곡입니다. 바흐 외에도 여러 작곡가의 다양한 버전이 있으니, 성탄 시기가 다 가기 전에 한 번쯤 찾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Z24EMr1DKNE

http://www.youtube.com/watch?v=TuqnZcCXc_4

구세주 오심의 의미와 기쁨을 옛 시대의 소박한 성탄 음악과 함께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연말 연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Merry Christmas!

_42-‡»` 5 1904.1.1 8:15 PM ˘ ` 46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나자렛 성가정
사랑과 질서

명백훈 프란치스코(수학강사)

사랑이야말로 하느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으뜸이요, 원천이 틀림없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속성이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용서하는 사랑이요, 정의는 다스리는 사랑, 그리고 지혜는 가르치는 사랑이고, 능력은 보살피는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 호에는 요셉, 마리아, 예수님이 계신 성가정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분 좋은 거룩함이 감돌았을까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곳은 오직 평온과 미소와 화목 속에 거룩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 아니었겠어요. 그 집에서는 기도가 있고 소박한 음식이 있으며 노동을 사랑하고 겸손이 있어 거룩한 질서만 있었을 겁니다.

착하게 되기 위한 덕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서, 인내, 꾸준함, 겸손, 애덕, 용기, 소망, 온유, 믿음, 사랑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중에서 질서는 특별히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의도적으로 질서는 맨 처음에 두고, 사랑은 맨 끝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완전한 직선(성덕)의 두 끝이기 때문입니다. 도화지에 그은 직선은 시작도 끝도 없는 수학적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두 끝은 서로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그린 사각형에서의 어긋난 꼭짓점 같은 곳에서처럼 말입니다. 그와 달리 나선이나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곡선이나 그림은 어느 것이나 항상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직선같이 단순하고 완전하여 두 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직선은 곡선보다 긋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어떤 복잡한 도면에서는 작은 결점은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선에서는 잘못된 곳을 하나하나 즉시 발견하게 됩니다.

기울어지거나 불확실해서 틀린 곳을 말입니다. 중림동성당의 후문에는 성가정에서의 한 장면이 모셔져 있습니다. 성모님이 바느질을 하시고 어린 예수가 요셉 성인의 일을 돕기 위해 편평하고 반듯한 널빤지를 건네주시는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마치 요셉 성인이 어린 예수에게 "얘야, 알겠느냐? 장식에 있어서나 선반으로 하는 일에는 그래도 그저 넘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아주 익숙하지 못한 눈은 어떤 점은 깨닫지만 다른 점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널빤지가 제대로 편평하지 않으면 농부의 식탁같이 아주 간단한 일에 있어서도 그것은 실패작이다. 한편으로 기울거나 쓰러질 것 같이 된다. 그 식탁은 땔나무로밖에는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사람들은 이 말을 영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지옥 불에 던져지기에 알맞은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즉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대패질이 되고 다듬어질 널빤지처럼 완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일거리의 여러 부분을 맞추려고 할 때에 불안한 새처럼 이 일에서 저 일로 건너뛰는 것같이 무익한 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처럼 그의 영적인 일을 무질서하게 시작하면 그는 아무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 따라서 질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사

_42-‡»` 5 1904.1.1 8:15 PM ˘ ` 47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무언의 교훈이 오가는 이곳 한편에는 성모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려는 듯(루카2, 51)' 한 고요한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무질서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질서 없는 친구 사이의 우정, 질서 없는 형제 · 자매 간의 우애, 질서 없는 부부 간의 애정, 질서 없는 스승 · 제자 간의 예의, 질서 없는 부모 · 자식 간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유익함보다는 불완전으로 이끌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진리와 성실성과 성덕의 문제에서는 반듯한 널빤지에서와 같이 적응도 타협도 없다는 교훈을 어린 예수는 성모님과 요셉 성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런 지혜를 알기에는 예수가 너무 어려 보인다고요? 하지만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질서이다' (집회 1, 5)라는 구절과 '하느님은 특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풍부히 나누어 주신다' (집회 1, 10)라는 구절을 생각할 때, 사랑이신 하느님이 아직 어린아이지만 말씀이신 당신의 아들에게 말의 지혜와 고결함을 주셨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어린아이라는 성장의 법칙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의 큰 빛과 지혜 안에 이루어질 인간의 구원, 곧 구세주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지혜 자체이신 분이 자신의 어머니와 양부께 자신의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요셉은 가장이므로 성모님과 어린 예수는 그에게 애정과 존경과 복종을 드립니다. 이것은 도덕적 질서입니다. 가정은 집과 가구와 옷과 음식과 더불어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느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짐승에게 털을 주시고, 새들에게는 깃을, 풀밭에는 신록을, 골짜기의 백합에는 옷을 주시는 하느님의 섭리 말입니다. 집과 옷과 가구와 음식들을 주시는 하느님의 손을 찬미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주의 선물로서 경건하게 다루는 것은 물질적인 질서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분의 빛나는 사랑과 이토록 기분 좋은 질서가 있기에 아마도 어린 예수는 세상의 일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떠나온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가슴 깊이 성가정을 떠올려 봅시다. 어린 예수가 온전히 행복하였을 나자렛 성가정의 고요한 하루를 상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한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 (요한 1, 14) 못지않게 하느님이 우리 사람에게 순종하셨다는 것, 곧 '예수는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루카 2, 51)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신비인 것 같습니다. 요셉 성인의 상본이나 조각을 보면 백합꽃과 더불어 반듯함의 상징인 직각삼각자를 들고 계신 것을 간혹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아울러 성인의 반듯함을 따르려는 우리들은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뜻을 가지고 반듯하게 살며 그로써 마음과 영혼에 인자하신 예수님의 빛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_42-‡»` 5 1904.1.1 8:15 PM ˘ ` 48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벨기에 반뇌와 보랭 성모 발현성지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여라, 항상 기도하여라’

류정호 데레로사(가톨릭생명연구소 연구위원 · 작가)

희뿌연 정류장 불빛조차 얼어붙는 겨울밤, 홀로 긴 그림자 늘어뜨리고 닿는 버스마다 막내딸이 내려오나 기웃거리던 우리 엄마. 다다미 단칸방에서도 비닐온실을 만들어 화분에 키운 꽃과, 창가에 걸어둔 작은 조롱에서 재재거리는 새소리로 자연을 가깝게 끌어주시던 우리 엄마. 식당의 물 한 사발로 허기를 달래고, 오가는 행인이 손님이려니 눈길 좇던 우리 엄마. 어쩌다 장사가 잘 된 날은 얼굴 가득 자그르르 웃음꽃 피우고 찬거리 든 양손을 덩실거리며 이슥한 밤길을 내처 오시던 우리 엄마.

스스로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드님까지 내어주신 지극한 사랑.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부활로 인간에게 참된 희망을 품게 한 하느님을 알기 전까지 내게 신앙은 오로지 우리 엄마였다. 뙤약볕에 거북등같이 까맣게 갈라진 엄마의 발등을 보면서 밤 새워 공부할 수 있었고, 엄마의 환한 미소를 그리며 1등을 꿈꾸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이 세상의 전부인 엄마를 슬프게 하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베갯머리에까지 일렁이던 촛불의 긴 그림자는 엄마의 곡진한 기도소리를 담고 새벽을 열었다. 꿈결 같은 엄

_42-‡»` 5 1904.1.1 8:15 PM ˘ ` 49 G4ˆ•´ PS IN 2750DPI 300LPI T

기적의 염원

번뇌성모

보랭 성모 발현성지

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무엇을 위해 저렇게 매일 기도를 할까', 자식이 늘 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씩 엄마의 기도가 궁금했다.

버스는 빗물이 방울방울 맺힌 반뇌의 성모님을 떠나 벨기에의 또 다른 성모발현 성지인 보랭으로 달리고 있다. 광활한 유채꽃 대지가 노랗게 뒤덮은 차창을 후드득 성긴 빗방울이 빗금을 그으며 길게 따랐다.

벨기에 동부지역 거대한 전나무 숲이 시작되는, 축축하고 질퍽거려 '진창'이라 불리던 가난한 마을 반뇌. 팔십 년 전, 마을의 외진 베코네 부엌 창가에서 동생을 기다리던 마리에트에게 아름다운 부인이 처음 나타났다. 단박에 성모님을 알아보고 로사리오 기도를 바친 마리에트에게 여덟 번이나 발현하신 반뇌의 성모님은 "나는 가난한 자들의 동정녀다." "작은 성당을 원하고, 기도를 많이 하여라.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부드러운 당부를 남기셨다. 때로는 슬픈 빛을 띤 얼굴로 "나는 구세주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이니라. 기도하여라. 기도 많이 하여라"는 엄한 목소리를 덧붙이기도 했다. 여덟 번의 발현에서 다섯 번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당부하시면서 기도의 중함을 일깨우신 반뇌의 성모님이다.

성모님께서 마리에트에게 손을 담가라던 샘물가에서 두 팔 들고 빗속 묵주기도를 바치던 우리 성당의 자매들은 노란 유채꽃의 환영과 환송을 오가며 시나브로 꿈길에 젖어들었다. 꿈속에서도 로사리오에 빠진 듯 평화로운 얼굴들이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의 얼굴에는 물질에 취한 오만함이 없다. 하느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성모님에게도 자기의 생각을 덧칠하지 않는다.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아이인 것이다. 성모님은 그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마리에트를 인격으로 존중하며 나타나신 것이다.

어릴 적 나의 신앙이었던 우리 엄마도 내가 공부를 잘해서도, 예뻐서도 아닌, 오로지 엄마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최고이며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만큼은 용납하지 않았던 우리 엄마는 한 번씩 회초리를 드셨다. 찰싹이던 회초리 소리가 그리운 지금에서야 성모님의 발현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모님도 자식 같은 인간들이 기도에서 멀어지고 물질을 숭배하며 오만해짐을 멀찌감치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_42-‡»` 5 1904.1.1 8:15 PM ˘ ` 50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번뇌 성모 발현 목격한 마리에뜨베코 집

벨리에 유채꽃 밭

보랭 성모 발현 목격한 아이들

버스 창밖은 되감기는 필름처럼 노란 유채꽃 구릉을 넘으면 초록 짙은 평원의 풍경을 되풀이했다. 한참을 달리니 소들이 풀을 뜯는 초지를 지나 꽃화분을 내건 주택의 좁은 골목에 이르렀다. 이윽고 가는 빗속에 칠엽수가 높다란 길을 이루는 소박한 보랭 마을에 닿았다. 1949년 교황청이 공식 인가한 보랭 성모발현 성지가 기차역이 가까운 작은 마을 한가운데에 정결하다.

보랭의 성모는 반뇌보다 1년 먼저인 1932년 11월에서부터 1933년 1월까지 서른세 번에 걸친 발현에서 "기도하라"는 곡진한 말을 남겼다. 열네 살 앙드레 드장브르와 아홉 살 질베르트 드장브르 자매, 열다섯 살 페르난드 브와장과 열세 살 질베르트 브와장, 열한 살 알베르 브와장 형제의 다섯 아이에게 순백의 옷을 입고 황금빛 나는 왕관을 쓴 성모는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녀"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오도록 성당을 지어라"와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여라"는 말과 함께 두 팔을 펼쳤는데, 가슴에 빛이 줄기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심장이 드러났다고 한다.

마지막 발현 때는 다섯 아이들 각각에게 "나는 천주의 성모이며 하늘의 모후이다. 항상 기도하여라. 잘 있어라", "나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겠다. 잘 있어라", "잘 있어라", "너는 나의 아들을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 너 자신을 희생하라"고 이르며, 끝으로 페르난드에게 황금빛 성심을 보며주며 "잘 있어라"는 말을 남긴 후 사라졌다.

여느 성지에서처럼 밤을 새워 기도한 사람이 타고 온 휠체어를 두고 두 발로 성큼 성큼 걸어간 기적의 사례도 많다. 그래서인지 성지 여기저기 휠체어 탄 백발의 노인들이 눈에 띄었다.

많이 하고, 항상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가진 것 없는 우리 엄마는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던 것이 기도밖에 없는 듯, 새벽을 기도로 열고, 밤을 기도로 닫았다. 엄마는 하느님께 자식을 위한 청을 곡진한 기도로 드린 것이다. 기도로써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고, 기도로써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음을 알았던 우리 엄마였다.

성전에 소담한 한글 성모송이 걸린 보랭 성지는 우리나라 어느 성지에 있는 듯 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이곳에 한국인의 자취가 담겼으니, 오베핀 빨간 꽃향기 담은 성모님은 이미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황금빛 심장을 드러내 보이시리라. 늘 기도하라는 당부와 함께.

_42-‡»` 5  1904.1.1 8:15 PM  ˘  ` 51 G4ˆ •´ PS IN 2750DPI 300LPI T

2014년
교황님
기도 지향

1월 일반 지향 : 경제발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의 존엄을 존중하는 진정한 경제 발전이 증진되도록 기도합시다.

2월 일반 지향 : 노인들

교회와 사회가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도록 기도합시다.

3월 일반 지향 : 여성의 권리

여성의 권리와 존엄이 모든 문화 속에서 존중받도록 기도합시다.

4월 일반 지향 : 생태 환경과 정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피조물을 보호하고 천연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기도합시다.

5월 일반 지향 : 대중매체

대중 매체들이 진리와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6월 일반 지향 : 실업자

실업자들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일자리를 찾도록 기도합시다.

7월 일반 지향 : 스포츠

스포츠가 언제나 인류의 우애와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8월 일반 지향 : 난민들

폭력으로 자기 고향을 버리고 떠나올 수밖에 없는 난민들이 따스한 환대를 받으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도록 기도합시다.

9월 일반 지향 : 심신 장애인들

심신 장애인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사랑과 도움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10월 일반 지향 : 평화

주님께서 전쟁과 폭력에 시달리는 지역들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11월 일반 지향 : 외로운 사람들

외로움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께서 늘 그들 곁에 계심을 깨닫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12월 일반 지향 : 성탄, 인류의 희망

구세주의 탄생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주기를 기도합시다.

_42-‡»` 5  1904.1.1 8:15 PM  ˘  ` 52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지금 SNS에서는 …

RT 유영훈 (한국평협 사무국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이를 그대로 있게 한다. 왜냐...?
교황님은 아버지와 같기 때문... ^^

[2013년 12월 2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암에 걸린 어린이를 만나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지난 토요일 폴란드에서 로마로 온 백혈병이나 종양이 있는 아픈 어린이들과 함께했다. 바티칸의 추기경회의 홀에서 교황은 그곳에 모인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방문과 교회를 위한 그들의 기도에 대해 감사했다.
"너희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통해 교회를 위하여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또한 너희의 기도와 함께하신다"고 말하고 "너희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면서 어린이들을 먼저 축복하셨다.

_42-‡»` 5 1904.1.1 8:15 PM ˘ ` 53 G4ˆ•´ PS IN 2750DPI 300LPI T

[2013년 12월 3일] 교회는 아버지의 너그러움과 용서를 통해 받아들여진 모두를 초대한다. – 교황 프란치스코(트위터에서)
프란체스코 디 조르지오 마티니 작, 천사들 사이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 – 국립미술관(워싱턴)

[2013년 11월 29일]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해성사와 거룩한 영성체로 이끄는 중요한 것입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트위터에서)

[2013년 12월 5일] 독일에서 온 약 25미터 높이에 7.2톤 무게, 45년 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 베드로 광장에 세워지고 있다.

_42-‡»` 5 1904.1.1 8:15 PM ˘ ` 54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평협 '신앙의 해' 결산 심포지엄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손희송 · 이하 한국평협)는 지난 11월 8일 청주교구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신앙의 해 결산 심포지엄'과 함께 '2013년도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조광호, 담당사제 서철)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상임위원회의 첫날 개막미사를 주례한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강론을 통해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눈에 띄는 평협 임원이 되기 바란다"며 "한국평협 임원들이 하느님의 눈에 띄면 본당과 한국 천주교회 모두에 축복이고, 하느님의 눈에 띄려면 하느님에 대한 위대한 꿈을 갖고 하느님을 감동시킬 내용으로 계획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위원장 염수정 대주교)와 공동주최한 「평신도의 '신앙의 해' 삶의 성찰과 쇄신」 심포지엄에서 염 대주교는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해는 많은 과제를 남겨주었다"며 "오늘날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과 과제들을 새로운 사목 방식으로 접근하여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복음화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목 방침을 언급하며 "오늘 세상 안에서 교회의 기본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찾는 것이야 말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심포지엄은 한국평협 담당사제인 손희송 신부의 기조강연에 이어 제1주제 최홍준 회장의 '한국평협의 신앙의 해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다짐 실천결과 보고', 제2주제 선한승 연구위원(사회사도직연구소)의 '신앙의 해를 사는 평신도 신앙의 모습', 제3주제 최혜영 수녀(성심수녀회)의 '신앙의 해의 자기 쇄신을 통한 한국교회 평신도사도직의 새 진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후에는 서철 신부(청주교구 사목국장), 서정권 회장(광주평협 회장), 임경수 교수(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 변진흥 박사(사회사도직연구소 부소장)가 토론자로 나서 날카로운 토론을 이어갔으며, 참석자들의 질의 · 응답으로 심포지엄은 마무리됐다.

심포지엄 후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안건을 재확인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구체적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둘째 날 상임위원들은 오웅진 신부의 특강과 배티성지 순례에 이어 김웅렬 신부(배티성지 담당)가 집전하는 파견미사 봉헌으로 일정을 마쳤다

_42-‡»` 5 1904.1.1 8:15 PM ˘ ` 55 G4ˆ•´ PS_IN 2750DPI 300LPI T

제8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
최우수상에 신중완 씨 '숨어 계신 우리 주 예수'

한국평협이 주최하는 제8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시상식이 11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렸다.

이번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에는 최우수상에 신중완 알베르토(의정부교구 중산성당)의 '숨어 계신 우리 주 예수'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 임대열(인천교구 부평4동성당 · 예비자)의 '사랑의 손길로', 최미경 루치아(서울대교구 역촌동성당)의 '주님의 사랑' 등 두 편이, 장려상에는 박병희 도미니코(수원교구 갈곶동성당)의 '피에타의 성모'와 이원영 세실리아(서울대교구 동대문성당)의 '주님 품밖에', 최인식 토마스아퀴나스(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의 '광야의 기도'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중완 씨는 "성가의 노랫말을 쓰는 작업은 매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칸타타를 들으며 노랫말이 떠올랐다. 작년 성탄 때 성체조배하며 감실을 바라보다 떠오른 노랫말로 상을 타게 되어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뽑힌 노랫말들은 한국평협 홈페이지(www.cl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풍 수해 필리핀 교구에 위로 메시지 전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2013년 11월 12일

한국평협은 지난 11월 초 필리핀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필리핀 교회의 하느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마닐라 대교구장 타글레 추기경에게 보내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기도와 원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옆의 글은 메시지 전문이다.

연쇄살인범 용서한 고정원 씨 제30회 가톨릭대상에 선정

한국평협이 지난 1982년 제정하여 올해로 30회를 맞는 가톨릭대상 시상식이 12월 7일 토요일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 가톨릭대상은 대상에 고정원 씨를 선정하고, 사랑부문상에 윤희문 · 허경자 씨 부부, 특별상에 한국가톨릭레드리본을 선정했다.

한국평협이 지난 1982년 신뢰회복운동과 함께 시작해 서른 번째 시상을 하게 된 가톨릭대상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 봉사해 공동선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가려 뽑아 격려하고 상을 주는 제도로서 사랑, 문화, 정의평화부문으로 나누어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_42-‡»` 5 1904.1.1 8:15 PM ˘ ` 56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올해 대상을 수상하게 된 고정원 씨는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손에 노모와 아내, 4대 독자인 아들을 잃고서도 그가 사형당하지 않도록 탄원서를 내 세상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고씨는 그 후에도 사형 폐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자녀를 위해 한푼 두푼 모아 온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아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이 세상에 '용서'라는 주제로 큰 울림을 준 점이 높이 평가됐다.

사랑부문 수상자 윤희문 · 허경자 씨 부부는 모범적인 봉사활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남편인 · 윤희문 씨는 교직에서 퇴임한 후 14년 동안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병원인 요셉의원에서 헌신적으로 자원 봉사해 왔고, 부인 허경자 씨 역시 요셉의원에서 함께 봉사함은 물론 전국의 나환우를 위해 700여 벌의 수의와 300여 개의 방석을 만들어 배포했다.

특별상으로 선정된 한국가톨릭레드리본은 세상에서 소외받고 있는 AIDS 감염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이다. 노숙인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HIV 감염인들을 지원해옴으로써 사회의 그늘진 곳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온 이 단체를 격려하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선정됐다.

시상에 앞서 최홍준 회장은 "올해 가톨릭대상이 30년에 이르러 수상자 발굴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며 "지난달 끝난 '신앙의 해'에 다짐하고 결심한 복음의 실천을 위해 이 상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축사를 통해 "가톨릭대상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온 몸으로 드러내는 분들을 찾아내어 그분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며 "그분을 따르는 대가는 때로는 세상의 가치 질서와 반대되기도 하고 고된 봉사를 요구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한국가톨릭레드리본의 대표로 수상한 상임이사 오대일 신부는 "우리 교회가 소외된 이웃, 특히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또한 사랑부문을 수상한 윤희문 · 허경자 부부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알려지게 되어 쑥스럽다"며 서로의 봉사활동을 더욱 높이 평가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대상 시상에 앞서 고정원 씨의 용서를 다룬 KBS다큐멘터리를 편집

_42-‡»` 5 1904.1.1 8:15 PM ˘ ` 57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한 동영상을 함께 보며 참석자들은 매우 숙연해졌다. 대상을 수상한 고정원 씨는 "남은 생은 폭력 없는 사회, 살인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범인이 잡히면 죽겠다던 생각은 천주교 신자가 되어 사라지고, 기도가 생활의 전부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담당사제인 손희송 신부는 "오늘 수상자를 보며 이분들이야말로 멸망할지 모르는 우리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닌가 한다"며 "이 자리가 수상자뿐 아니라 우리도 분발하는 자리가 되어 미약하지만 세상을 떠받드는 기둥이 될 수있는 자리가 되자"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시상식 후에는 가톨릭언론인협의회의 상임단체인 드림필앙상블의 축하공연과 축하만찬이 이어졌다.

'신앙의 해' 체험수기 공모 시상식
사랑상에 장기항 빈첸시오 형제

한국평협이 '신앙의 해'를 지내며 공모한 신앙생활 체험수기 시상식이 지난 11월 22일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신앙의 해'를 지내며 한국평협은 한국천주교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의 후원으로 전국의 신자를 대상으로 신앙체험수기를 공모하여 전국에서 응모한 수기 188편 중 사랑상 1편, 믿음상 2편, 희망상 10편, 입선 20편으로 총 33편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시상식에 앞서 최홍준 회장은 "지난 13개월여에 걸친 신앙의 해를 잘 살았는지, 개인은 물론 공동체로서도 돌아보게 되는 때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신앙체험수기 공모에 입상, 입선하신 여러분이야말로 바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신 분들"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이번 신앙체험 수기 공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게 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대주교는 "신앙의 해를 보내며 신앙생활 체험수기 공모를 통하여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체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그분의 은총을 느끼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갑니다"고 수상자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어진 시상식에 최우수상인 사랑상을 수상한 장기항 빈첸시오 형제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지난 5년 가까이 환우교리 봉사자로 소임을 맡으며 느낀 내용을 수기로 정리한 자신의 체험수기 '최 교수에게 부

_42-‡»` 5 1904.1.1 8:15 PM ˘ ` 58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르는 레퀴엠'을 발표하며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글이 많은 이들에게 읽혀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평협은 수상작을 모아 곧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서울평협 임원, 춘천평협과 교류 일환으로 춘천 38선 디모테오길 도보순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손희송 · 이하 서울평협)는 지난 10월 9일 임원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 임원들과 가족 23명이 춘천평협 주최로 진행된 38선 디모테오길 도보순례에 참여했다. 이번 순례는 지난 8월 춘천평협과의 교류모임의 일환이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춘천 38선 디모테오길 도보순례에는 서울평협과 의정부교구, 수원교구 신자 68명을 포함하여 약 1,200명의 참가자가 이광재 신부 63주기를 기념하며 양양 부소치재를 출발해 오상영성원을 거쳐 양양체육관까지 약 12㎞를 함께 걸었다.

38선 디모테오 도보순례길은 38선이 인접한 양양성당의 주임신부로 사목하며 이북에서 피난을 오는 성직자 및 수도자, 신학생, 평신도들을 도왔던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순례길이다. 그는 6.25전쟁이 터지자 피난을 거부하고 북한에 있는 신자를 구하기 위해 38선 인근에 남았으며 함경도 덕원 등에서 남하하는 수도자들을 생선 장수로 변장시켜 38선을 넘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공산당에게 체포돼 총에 맞아 숨졌고, 현재 춘천교구에서 6.25 순교자로 시복절차를 밟고 있다.

제10회 사랑 · 생명 · 가정 사진공모전 시상식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사랑 · 생명 · 가정 사진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0월 30일 명동 가톨릭회관 1층 평화화랑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서울평협이 주최하고 가톨릭사진가회(회장 김낙용)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찬으로 해마다 풍성한 잔치가 되고 있다. 올해는 총 88명이 305작품을 응모한 가운데서 대상 1점과 우수상 2점, 가작 5점, 입선 42점을 가려 뽑았다.

최홍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한 첫 번째 부문이 문화"라며 "사진 예술을 통한 문화의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고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사진학회장인

_42-‡»` 5 1904.1.1 8:15 PM ˘ ` 59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홍순태 교수는 심사평에서 "출품작의 수준이 크게 발전했다"며 "휴머니즘을 보여주는 인간성 깊은 작품들로 인해 공모전의 격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수상작을 칭찬했다.

올해 대상을 받은 김정옥 씨는 건강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대신 수상했는데, 아버지를 통해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좋은 작품을 발표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서울평협 담당사제인 손희송 신부는 시상식 후 "우리 사회의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진을 통해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복음화에 협력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말없는 피사체'의 아름다움을 찾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시상식 후 참가자들은 수상자들의 사진설명을 들으며 함께 사진을 관람했다. 사진전시는 오는 11월 5일까지 계속된다.

"온 세상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9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

2013년 제46회 평신도주일을 기념하는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가 11월 11일 저녁 7시 반 명동성당에서 개최됐다. 서울평협이 주최하는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는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았는데 서울대교구 인준 단체인 합창단 중 6개 팀이 출연하여 멋진 성가의 하모니를 들려줬다.

최홍준 회장은 "늦은 시간 함께 자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특별히 교구 단체인 합창단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담당사제인 손희송 신부는 격려사에서 "성가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차분히 정리가 되는 것같다"면서 "특별히 합창을 통해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성가를 부르며 성화되고 합창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서로 화합하고, 갈등을 하느님 안에서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자라나 교회부터 화합하는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출연팀인 수아비스 합창단, 가톨릭 남성합창단 울바우, 트리니타스 합창단, 아마뚜스 합창단, 그린합창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국악성가합창단은 한국평협이 마련한 제7회 우리성가 작곡공모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지정곡으로 연주했다. 명동성당을 가득 메운 1,000여 명의 신자들은 하느님 찬양의 연주에 감동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_42-‡»` 5 1904.1.1 8:15 PM ˘ ` 60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서울평협 제7차 민족화해 토론회 개최
민족화해를 위한 교회의 역할 고민해야

'민족화해의 길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서울평협이 주최한 제7차 민족화해토론회가 11월 18일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열렸다. 통일부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최홍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0주년이 된 올해 교회가 말하는 평화는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참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선포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이다. 이는 정의, 진리, 사랑과 평화이다. 인류 전체가 국가와 국경과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갈망하는 것도 평화를 건설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최창화 몬시뇰은 격려사에서 "어린 시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부모님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요한 14,27)라며 평화의 본질을 강조했다. 또 그는 "남과 북 당사자들이 스스로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이 토론회가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마태 5,9)'의 그러한 노력의 실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길랑 서울평협 대외관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동국대학교의 박선영 교수가 '역대정권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1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방과 6.25전쟁 모두 우리의 힘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제3국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며 "독일의 통일에서 교회의 역할이 컸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변진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과 정치평론가 이석우씨의 논평이 이어졌다. 변 사무총장은 "신뢰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불신의 강에 발을 담궈야 한다"며 남북한 간의 신뢰가 더 굳건히 쌓여야 함을 강조했다.

윤갑구 (주)에이스기술단 대표가 제2주제로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경제 · 에너지 환경 네트워크 구축'을 발표했다. 윤 대표는 "민족화해조직을 통해 통일을 준비해야 하며 남북의 철도와 전력 시설의 개선, 나진선봉, 개성, 신의주 특구의 개방과 인터넷 화해소를 통한 민족화해와 통일과 복음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기도와 사랑나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이어 류지철 에너지경제연구

_42-‡»` 5 1904.1.1 8:15 PM ˘ ` 61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원 선임연구원과 김호철 한국에너지포럼 사무총장이 각각 논평했다.

서울평협 분야별 부의장 선출

서울평협은 올해 초 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에 따라 지난 11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신심운동단체'와 '직능동호인단체' 모임을 갖고 각 1명씩의 부의장을 선출했다. 신심운동단체에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의 이병순(미카엘) 회장, 직능동호인단체에서는 트리니타스 합창단의 신호철(베드로) 단장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된 서울평협 정기총회부터는 당연직 선출직 부회장으로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가톨릭목공예
교회 최초 어린이 목공체험 열어

초등생들은 교과지식의 습득 외에 교회 문화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를 통해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을 다지며, 영육 간의 건강을 튼튼히 한다. 서울대교구 단체사목부 가톨릭목공예(회장)는 교회 최초로 어린이 목공체험 교실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가 교과지식 외에 결핍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다. 목공체험을 통해 쌓은 경험과 추억은 전인적인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교과지식 계획표에 따라 생활하느라 영육이 감당해 내기 어려운 과부하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가 체감하는 긴장과 심리적 압박은, 삶을 고민하는 어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톨릭목공예는 방학 중 신자 및 비신자 초등생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목공체험 교실을 지구별 성당마다 점진적으로 개설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유아대상으로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무를 매개체로 체험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교시에서 벗어나 자발성과 주체성을 기르고, 자기 존재의 확장을 경험하며, 더불어 스스로 깊은 생각 중에 무언가를 만들 때 목공체험이 좋은 영감을 줄 것이다.

_42-‡»` 5 1904.1.1 8:15 PM ˘ ` 62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3년 청년들과 함께 하는 카리타스 한생명 대축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명수, 담당사제 김명현 · 이하 대전평협)는 대전교구 청소년사목국과 공동 주관으로 10월 6일(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솔뫼성지에서 교구 내 청년 담당사제와 청년들, 교우들, 수도자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철환 당진시장 등 지역인사들 등 2,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아시아청년대회 및 한국청년대회 발대식 미사'를 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로 봉헌했다.

2014년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와 제3회 한국청년대회의 준비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이날 발대식 미사에서는 이명수 회장과 방보휘(바오로, 온양성당) 군이 청년대회 준비위원회 대표봉사자로 위촉장을 받았다. 또 이날 AYD-KYD 홍보대사로 가수 보아(끼아라)가 위촉되어 청년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발대식 미사를 시작으로 아시아청년대회 십자가는 교구 내 각 본당을 순회하며 아시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한국청년대회 십자가는 전주교구를 시작으로 한국청년대회에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각 교구를 순회하는 십자가순회기도를 시작한다. 한편 이날 발대식 미사를 겸해 대전평협이 매년 개최하는 카리타스 한생명 대축제 청년성가음악제와 한생명운동이 같이 개최돼 많은 청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전달했다.

한생명운동 '생명과 사랑 나눔'

대전평협은 하반기 한생명 운동 '생명과 사랑 나눔' 행사를 10월 9일, 11월 3일 이틀에 걸쳐 대전 동부지구 법동성당과 대전중부지구 대사동성당에서 개최하여 헌혈과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 접수를 했으며 헌혈증을 기증받았다.

사도직 단체 회장단 모임

대전평협은 11월 16일 오후 2시 동구 성남동 대철회관에서 대전교구 총대리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를 모시고, 교구 내 16개 평신도 사도직단체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사도직단체 회장단 모임'을 가졌다.

MBW를 비롯한 성령봉사회, 가톨릭사진가회, ME, 아자리아 등이 참석한 이날 사도직단체 회장단 모임은 사목기획국 국장 김명현 신부

_42-‡»` 5 1904.1.1 8:16 PM ˘ ` 63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의 말씀의 전례를 시작으로 참석 단체 소개 및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4 교구사목지표인 "청년들의 신앙 성숙과 말씀을 통한 은총의 삶을 삽시다!"에 대한 실천 방안과 평신도단체협의회와 각 단체 간의 소통을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그룹토의 및 발표의 시간을 가졌고, 이어 김종수 주교의 훈화가 있었다.

대전교구 한생명 운동 본부 공로패 수상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생명운동본부는 11월 24일(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주최한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2009년 대전평협 한생명운동본부가 설립되어 생명과 사랑 나눔 행사로 헌혈과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 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게 되었다.

대전평협 한생명운동본부는 주교회의 생명운동전국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한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1년에 4개 지구별 한생명 운동과 카리타스한생명대축제를 통하여 헌혈과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1만명을 목표로 올해까지 7,700명 장기기증희망등록 접수를 하였으며 750여 명이 헌혈과 헌혈증 기증으로 어려운 환우를 돕는데 앞장서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13년 제44차 정기총회

대전평협은 11월 7일(토) 오전 11시 세종시 전의면 정하상교육회관에서 교구 내 77개 본당과 9개 단체에서 270여 명의 본당 회장단과 단체 임원진, 대전평단협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미사강론에서 올 한 해 동안 교구, 본당에서 교구와 교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온 대전평단협 회장단과 상임위원들, 지구 각 본당의 회장단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유 주교는 최근 신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언급하며 "교회의 전통적인 격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눈이 있다'는 격언이 있다"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이 정말로 예수님의 눈을 닮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 복음의 눈, 사랑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볼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를 못한다"며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역지사지, 즉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만

_42-‡»` 5 1904.1.1 8:16 PM ˘ ` 64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요즘엔 거의 모든 것이 전투라는 생각만 든다"고 말하고 "교황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듯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의 사회의 소통의 하느님인데 우리가 그 어떤 도구가 되지 못하고 편을 가른다면 하느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최근 소통이 안 되는 사회 분위기를 안타까워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주례한 개회미사 봉헌과 2014년도 사목교서 "청년들의 신앙성숙과 말씀을 통한 은총의 삶을 삽시다!"에 대한 해설 특강에 이어 '2014년 사목교서에 따른 실천사항'에 대한 사목기획국장 김명현 신부의 특강, 그룹토의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 후 2014년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이어진 '2014년 아시아청년대회(AYD) · 한국청년대회(KYD)를 위한 바람직한 사목위원들의 역할'과 '성경읽기운동(예루살렘 성경 공부) · 선교운동 · 소공동체 운동에 따른 각 본당 신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목위원들의 의견', '카리타스 축제에 대하여-2014년 카리타스 한생명 대축제 때 성가음악제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 '2014년도에 홍성지구(4월)와 대전서부지구(6월), 대전북부지구(10월), 보령지구지구(11월)에서 실시되는 '한 생명 운동'을 개최할 본당'에 대한 지구별 그룹토의와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제44차 정기총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사업실적 보고와 2014년도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했다.

대전평협은 내년 대전교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한국 청년대회에 적극 협조해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홈스테이 및 봉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과 성경읽기운동(예루살렘 성경공부)에 적극 동참해 성경과 함께 생활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32차 인천교구 울뜨레아 대회

10월 3일(목) 교구장 최기산 주교와 교구 사제들, 2,700여 명의 꾸르실리스따가 참석한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이사 4, 1)라는 주제로 제32차 인천교구 울뜨레아 대회가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묵주기도 빛의 신비를 시작으로 내빈과 기수단 입장 후 꾸르실료 담당 김현수 신부의 시작기도와 함께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었다. 강론에서 최기산 주교는 "주님 뜻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잊지 말자. 신앙은 우리 모두의 빛이며 그 빛 속에

_42-‡»` 5 1904.1.1 8:16 PM ˘ ` 65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서 늘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기 바란다"고 전했다. 2부에서는 평신도 강의와 지구별 난타, 스포츠댄스, 성극, 합창 등 장기자랑이 이어졌으며 촛불예식으로 평신도로서의 소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제3회 가톨릭 클래식기타 합주단 자선음악회

11월 1일(금) 19시 30분 부평4동 성당에서 '사랑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제3회 교구 가톨릭 클래식기타 합주단(단장 김홍) 자선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음악회는 불우이웃, 새터민들과 청각장애인들을 후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플루트와 현악 4중주 퓨전악팀, 부평4동 성당 주임인 민경덕 신부의 재즈피아노 연주가 더해져 아름답고 따뜻한 무대가 되었다.

제8회 노인의 날 행사

11월 2일(토) 9시 30분 인천도원실내체육관에서 교구 노인사목부(담당사제 고동현) 주최로 '제8회 노인의 날'을 경축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대리 정신철 보좌주교의 주례로 28개 본당, 1500명의 노인대학 교사와 어르신들이 참여해 미사를 봉헌했다. 각 본당의 노인대학 발표회를 통해 어르신들은 한 해 동안 다듬어왔던 실력을 발휘하며 '제8회 노인의 날' 행사를 자축했다.

성령대회 '성령을 받아라'

인천교구 성령쇄신 봉사회(회장 김남순, 담당사제 이상희)는 11월 3일(주일) 9시 도원실내체육관에서 "성령을 받아라"(요한 20, 22)란 주제로 교구 성령대회를 개최했다. 오웅진 신부와 차동엽 신부의 강의가 있었으며 교구장 최기산 주교와 교구 성령지도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되었다. 최기산 주교는 "진정한 행복은 하느님에게서 나온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희망을 품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신앙의 해' 폐막미사

11월 23일(토) 10시 30분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주례로 '신앙의 해' 폐막미사가 봉헌되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를 모시고 봉헌된 '신앙의 해' 폐막미사 중 강론에서 최기산 주교는 "신앙의 해가 지향했던 바를 계속 이어 주님을 늘 만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체험하고 느

_42-‡»` 5 1904.1.1 8:16 PM ˘ ` 66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끼며 살아가자"고 전했다. 미사 중에 신앙 여정의 출발인 세례를 기억하고자 성수 예식을 하고 전신자들이 파스카초에 불을 붙여 들고 신앙 고백을 했다. 또한 교구 50년사와 교구 성소후원회(담당사제 조명연)에서 필사한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필사본을 봉헌했다.

인천 갑곶순교성지 영성센터 · 납골당 축복식

인천교구 갑곶순교성지 50주년 기념 영성센터(담당사제 지성용)는 12월 8일 오전 11시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44-2 현지에서 교구장 최기산 주교 주례로 많은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50주년 영성센터와 '순례자를 위한 바다의 별 성당', '천국의 문 납골당' 축성미사를 봉헌했다. 전체면적 4889㎡ 규모인 영성센터는 갑곶에서 순교한 순교자 3위의 이름을 따 △박상손관 △우윤집관 △최순복관 3개 동으로 이뤄진 통합 피정센터다. 내부에는 세미나실과 휴게실, 카페, 영화관, 성전 등을 갖춰 다양한 형태의 피정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최근에는 바오로딸 서점과 함께 전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 역사박물관도 센터 한편에 마련돼 교회 교육기관으로서 더욱 완성된 면모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신앙 선조들의 영성이 깃든 이곳에 조성된 '천국의 문 납골당'은 3500여 기를 수용할 수 있어 벌써부터 신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위로의 샘' 발행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래수 · 담당사제 문희종 · 이하 수원평협)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평신도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고자 매월 첫 주 주보 간지로 '위로의 샘'을 발행하여 전 신자에게 배부하고 있다. 이에 10월 6일자, 11월 3일자를 발행하여 배부하였다.

11월 정기 임원회의 개최

수원평협은 11월 2일(토) 17시 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영성지도신부와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기 임원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3일 개최된 교구설정 50주년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2014년도 상반기 총회장 연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평협 성지순례

지난 11월 16일 각 단체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평협

_42-‡»` 5 1904.1.1 8:16 PM ˘ ` 67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성지순례를 하였다. 수원교구청에서 출발하여 미리내성지에 도착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성지를 둘러본 후 은이성지로 도보순례를 하였다. 3시간 이상 걸으며 이 길로 성김대건안드레아신부님의 시신을 모시고 오신 순교성인들을 생각하며 이분들의 삶과 믿음을 본받아야 함을 마음속에 새겼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대구대교구 평협 정기총회

2013년 10월 26일(토) 대구대교구청 별관 대회합실에서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제31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의 주요 안건은 임원 교체와 평협 구성원 변경에 따른 회칙 변경과 예결산보고, 사업보고 등이었다. 새 회장으로 선출된 박해룡(아타나시오) 꾸르실료 주간의 소감 발표, 파견미사 중에 새 회장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이 수여되었고, 김종해(비오) 전 회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쟁점이 된 것은 평신도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본당 평협 회장들이 구성원에서 빠지고 명칭만이 단체협의회가 아니라 구성원이 교구장 인준 제단체장들로 되므로 실질적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대구관구(대구, 청주, 안동, 마산, 부산) 평협회장단 2차 간담회

대구관구(대구, 청주, 안동, 마산, 부산) 교구 평협회장단 2차 간담회가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관으로 2013년 11월 20일 오후 5시 부산교구청에서 있었다.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대구관구 5개 교구 평협 회장단 간의 정보 및 업무 교류를 위하여 마련한 1차 간담회에 이어 2차 간담회는 먼 길도 마다않고 자리한 5개 교구 평협 회장단을 손삼석 주교는 "교구 간에 참 좋은 교류인 것 같다"며 반갑게 맞이하였다. 교구장 황철수 (바오로) 주교는 "신앙의 해 폐막을 앞두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한다. 독거세대가 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석 평협 총무는 부산평협이 하는 주요 활동을 영상과 함께 소개하였다.

일일 무료 급식 봉사

2013년 11월 17일 오후 5시에 부산진역 광장에서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하창식, 담당주교 손삼석 · 이하 부산평협)는 부산

_42-‡»` 5 1904.1.1 8:16 PM ˘ ` 68 G4ˆ•´ PS IN 2750DPI 300LPI T

교구장 황철수(바오로) 주교, 신빈회, 성모여자고등학교 봉사단, 안락성당 사랑하올어머니 Pr과 함께 450여 명의 가난한 이들에게 일일 무료 급식 봉사를 하였다. 특히 이날 황철수 주교는 450여 명에게 밥퍼는 일을 손수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아 하셨다. 부산평협 임원들은 음식을 나누고 배식하는 봉사를 하였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3회 명례성지의 기본구상 심포지엄

마산교구 명례성지 조성추진위원회(담당사제 이제민)가 주최하고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황성, 담당사제 강영구 · 이하 마산평협)가 후원한 제3회 명례성지 심포지엄이 지난 9월 28일 경남 밀양 하남읍 명례성지에서 '명례성지의 기본 구상'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강영구 신부(교구 총대리)를 비롯해 사제단, 수도자, 평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심포지엄은 제1주제 '밀양의 문화유산과 명례성지' '명례성지 기본 구상과 건축계획' 등을 이호열 교수(부산대학교)가 발제하고 최재상 신부(문산본당 주임)가 논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제2주제 '자여도에 펼쳐진 소금길'은 최헌섭 원장(두류문화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양운진 명예교수(경남대학교)가 논평하였다. 마지막 주제인 '명례성지 기본 구상과 건축계획'은 김정신 교수(단국대학교)가 발제하고, 김태중 교수(경남대학교)가 논평했다. 강영구 신부는 격려사를 통해 "이곳 명례가 마산교구의 자랑스러운 성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하였다.

마산평협은 지난 2011년 제1회 명례성지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 이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명례성지는 병인박해 때 순교한 신석복 마르코가 태어난 곳이자 영남 및 마산교구의 첫 본당이 있던 곳이다.

2013년 추계 교구평협 상임위원회의

마산평협은 2013년 추계 상임위원회의를 10월 18일(금) 마산교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2013년 후반기 주요 사업(산상미사, 평신도주일, 도보순례, 책 읽는 그리스도인 운동, 복음화대상 등)을 점검하고, 2014년 주요 사업(총회 및 평신도대회 등) 일정을 협의하였다.

제5회 웅천왜성의 성역화를 기원하는 산상미사

마산평협은 제5회 웅천왜성의 성역화를 기원하는 산상미사를 10월

_42-‡»` 5 1904.1.1 8:16 PM ˘ ` 69 G4ˆ•´ PS IN 2750DPI 300LPI T

26일(토) 웅천왜성 최초의 사목터에서 봉헌하였다. 미사는 강영구 총대리신부의 주례와 이제민 신부(명례성지)의 강론으로 진행됐으며, 김국진 지역장신부님과 수도자 및 2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웅천왜성의 성역화를 기원하였다.

웅천왜성은 한국에서 최초로 미사를 봉헌하고 성사를 집행했던 곳으로 1593년 12월 27일 예수회 소속 스페인의 세스뻬데스 신부께서 일본군의 군종신부로 조선에 입국하여 사목을 하시던 곳이다. 교구 설정 40주년을 기념하여 교구에서 '심포지엄'을 실시한 후 마산평협은 매년 산상미사를 통하여 성역화를 기원하고 있다. 최근 신개발로 인하여 세스뻬데스 신부의 조선 입국 400주년을 기념하여 스페인에서 제작하여 조성된 기념비를 탕수바위 해변 근처에서 웅천왜성 아래 새로운 공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구역별, 레지오별, 단체별로 탕수바위와 세스뻬데스 신부의 기념비, 웅천왜성을 순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ME협의회 정기총회

마산교구 ME(Marriage Encounter) 협의회(담당 조정제 오딜론 신부, 대표부부 장승환 마르티노 · 박미숙 루치아)는 10월 19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분과별로 2013년 업무현황과 2014년 계획을 발표하고 교구 ME 운동의 확대와 발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ME 발표부부로 봉사하던 김준호 요아킴 · 손정숙 안나 부부의 은퇴식이 있었으며, 교구장 안명옥 주교가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제17대 ME 대표부부의 소명식별도 함께 거행되었는데, 제17대 교구 ME 담당 신부는 김정훈 라파엘 신부(마산가톨릭교육관장), 대표부부는 박안홍 시몬 · 손수향 가타리나 부부가 소명 식별되었다.

교정사목 후원회 정기총회

마산교구 교정사목후원회(담당 삼위일체 수도회 안찬모 이냐시오 신부, 이영민 베드로 신부)는 10월 28일 교정의 날을 맞아 천호성지를 순례했다. 이날 순례에는 이영민 베드로 신부를 비롯하여 교정사목후원회 회원과 봉사자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교정사목후원회 회원과 봉사자들은 천호성지에 도착하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을 지켜 온 교우촌과 순교성인의 안식처인 성지 곳곳을 둘러보며 묵상했다. 순례에 참석한 회원들과 봉사자들은 "가을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붉게 물든 단풍과 실로암 연못을 돌아 두 팔을 벌려 반기시는 예수님, 날

_42-‡»` 5 1904.1.1 8:16 PM ˘ ` 70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씨까지 청명하여 야외미사의 은총은 더욱 컸다. 앞으로도 계속 봉사의 삶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가톨릭문인회 20주년 기념미사 및 가톨릭문학신인상 시상

마산교구 가톨릭문인회(회장 민창홍, 담당사제 황인균)는 11월 16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문인회 회원과 수상자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안명옥 주교님을 모시고 문인회 설립 20주년 감사 미사 및 기념식을 열었다. 또 교구청 현관에서는 회원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육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구장 사목 방침을 실천하고 20주년의 뜻을 새겼다.

이날 미사는 교구장 안명옥 주교의 주례로 역대 지도신부인 신정목 우르바노 신부(진교본당 주임), 차광호 파스칼 신부(반송본당 주임), 담당 사제인 황인균 요셉 신부(미디어국장)가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를 집전하신 안 주교는 강론을 통해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의 무늬를 쓰다듬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희망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자"며 문인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이어진 기념식에서 문인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민장홍 회장은 문인회를 돌보아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교구장 주교님을 비롯한 역대 지도신부님들께 감사를 전하며 설립 초기의 마음으로 내실을 기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신정목 초대 지도신부는 설립 당시를 회고하면서 문인회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를 하였다. 경과보고 후 서인숙(마르타) 수필가와 강희근(요셉) 시인이 교구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제7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당선자인 시부문 변혜연(하대동본당), 소설부문 서경연(반송본당), 수필부문 허태범(양덕동본당)이 교구장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이어 수상자들의 소감발표와 시낭송, 축가와 미디어국장 신부의 감사인사로 기념식이 마무리되었다.

마산지구 여성협의회 바자회

마산지구 여성협의회(회장 최경희 마리아)는 11월 7~8일 이틀간 교구청 마당에서 '사랑과 나눔의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마산지구 각 본당은 식품과 의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여 신자와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_42-‡»` 5 1904.1.1 8:16 PM ˜ ` 71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창원지구 바자회와 추수감사 미사

창원지구 여성협의회(회장 김정해)와 가톨릭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회장 정현찬)가 주최한 '창원지구 바자회와 추수감사 미사'가 11월 9일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되었다. 한 해 풍성한 수확을 거둔 데 대해 하느님께 감사와 함께 봉헌을 드리며, 내년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였다. 이날 행사는 감사 미사와 바자회로 진행되었으며, 미사 후에는 떡메치기 행사도 있었다. 바자회는 창원지구 각 본당에서 준비한 먹거리와 물품으로 신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나눔의 장이 되었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신도단체 교구장님 사목방문

지난 10월 10~11일 이틀간에 걸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성령쇄신봉사자회, 세나뚜스, 다락방기도모임, M.E, 파티마의세계사도직,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꾸르실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평협, 여성위원회, 순교자현양회)에 대한 교구장 사목방문이 있었다.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비서실장, 사목국장 신부가 함께 방문해 각 단체의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 응답 시간을 가진 후 각 단체의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2013년 평신도대회

광주평협은 10월 19일(토)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신앙의 해와 교구성년을 기념하여 평신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평신도 열전'이라는 주제로 황양주 신부의 특강이 있었고, 「신앙의 해」와 「교구성년영성운동」 실천사례 수기공모 당선자들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번 실천사례 수기공모전에서는 조상현 안드레아(학운동성당), 김향자 마리나(광천동성당), 문영배 고대프리도(연향동성당) 등 3명이 우수상을 받았다.

단체평협 임원연수회

광주평협은 11월 9~10일(금, 토) 평생교육원 대건연수관에서 꾸르실료와 운전기사사도회 등 16개 단체 소속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연수회를 가졌다. 첫날은 각 단체 소개와 2014년도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봉사하는 가정 공동체를 위한 단체평협의 역할'을 주제로 분임토의를 했다. 다음날은 이옥수 비서실장 신부의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특강과 우원주 사목국장 신부의 파견미사로 마무리하였다.

_42-‡»` 5 1904.1.1 8:16 PM ˘ ` 72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평협 · 여성위원회 임원연수회

광주평협과 여성위원회 임원 22명은 11월 16일(토) 완도수목원으로 임원연수회를 다녀왔다.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평가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친교를 나누었다.

종교 간 일치 이웃종교 성지탐방 참석

광주종교인평화회의가 11월 29일(금) 영광군 백수읍에 있는 원불교 발상지 영산성지에서 주최한 이웃종교 성지탐방 행사에 평협과 여성위원회 임원 12명이 다녀왔다. 이날 5개 종단 중 불교와 천도교를 제외한 3개 종단(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소속 30여 명이 참여해 성지순례를 하면서 종단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별 사목협의회 임원연수회 실시

광주평협은 2014년 교구장 사목교서 '세상에 봉사하는 가정공동체'에 따른 실천 방안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포교활동에 관한 교육을 본당 사목협의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구별로 실시하였다.

– 특강1. 2014년 교구장 사목교서(세상에 봉사하는 가정공동체)
– 특강2.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포교활동에 대한 대처방안

일시	지구	장소
11월 30일(토)	광주동부 광주남부 광주북부1, 2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12월 1일(주일)	광주서부/광주광산1, 2	〃
12월 7일(토)	목포무안/목포신안	하당성당
12월 8일(주일)	나주함평	나주성당
12월 14일(토)	서남부	해남성당
12월 15일(주일)	순천	저전동성당
12월 21일(토)	여수	문수동성당
12월 22일(주일)	중남부	보성성당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2013년 정기세미나 광주개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2013년 정기세미나가 '여성, 교회 및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11월 26일(화)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김정용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의 '여성의 주체성과 아름다움'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미란 교수(전남대학교)와 김 세서리아 연구원(이화여자대학교)의 토론이 있었다. 이어 우원주 신부(광주대교구 사목국장)의 광주대교구 여성사목 현황보고와 박정우 신부(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위원)

_42-‡»` 5 1904.1.1 8:16 PM ˘ ` 73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의 '여성 신자들의 건강한 신앙생활' 설문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다. 특히 이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행사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다.

제30회 광주가톨릭미술가회 회원전

광주가톨릭미술가회(회장 김재형, 담당사제 김명섭)는 10월 22~28일 1주일간 은암미술관에서 제30회 정기회원전을 열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을 주제로 26명의 회원 작품 45점이 전시되었다. 이번 회원전에는 회화 외에도 서예와 공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리아사업회

부부를 위한 새가정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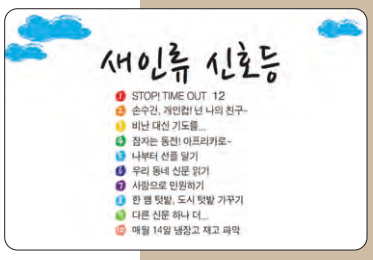
포콜라레 새가정운동은 매년 부부들을 대상으로 피정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4~6일에는 대전신학교 옆 정하상교육관에서, 10월 23~25일에는 포항 갈평 피정의 집에서 '부부일치' 를 주제로 학교가 열렸다.

모두 100여 쌍의 부부가 참여하였고, 가정 안에 참된 일치를 건설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정 안에 머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다.

각 가정 안의 도전들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면서 부부가 일치되어 있을 때 가정의 참된 평화가 자리하게 됨을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새인류 신호등



포콜라레에 속한 새인류운동은 지난 10월 27일, 경북 고령본당을 방문하여 새인류운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운동은 복음 말씀이 강력한 사회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면서 전 인류를 하나의 가정이 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날 소개한 내용은 생활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쉽게 적용해 살 수 있는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새인류 신호등' 과 이를 실천한 경험담을 같이 나누었다. 여기에 참석하였던 분들은 매년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 본당 행사를 하곤 하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각과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였다.

_42-‡»` 5 1904.1.1 8:16 PM ˘ ` 74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모락모락 사랑 나르기

포콜라레 새젊은이운동이 벌이는 모락모락 사랑 나르기 행사가 2013년 11월 23일 열렸다.

서울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60여 명의 젊은이들이 상계 복지관에 모여 연탄 나르기 팀, 난방용 기름 나르기 팀, 말벗 봉사 팀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연탄은 200장씩 10집에 2000장을 나눠주었고, 연탄보다 기름이 절실한 가정에 기름을 구입하여 젊은이들이 직접 날라서 기름 탱크에 넣어 드렸다. 말벗 봉사 팀은 독거노인에게 점심 대접과 함께 말벗이 되어 드렸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어주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레바논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도 함께 참여하여 봉사를 하고 난 뒤 참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전해 주었다.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봉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세계교회 협의회(WCC) 총회 참석

지난 10월 30일~11월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적인 교회일치운동 협의회이자 개신교 단체인 세계교회 협의회 제10차 총회가 열렸다. 포콜라레 운동은 창설자 끼아라 루빅이 1967년 WCC 임원들과 만난 이후 지금까지 강한 유대 관계를 가져왔으며 이번 부산 총회에도 포콜라레 운동 로마 총본부에서 파견된 교회일치운동 부문 관계자들과 국내외 일부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총회 기간 중 부산지역 포콜라레 회원들과 다양한 형태로 만날 수 있었다. 가톨릭이 맡았던 저녁기도회(매일 저녁 다른 교회가 준비함)에 부산 공동체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그중에는 군산에서 온 정민 목사도 있었다. 가톨릭교회 대표단으로 오스발도 파렐 대주교님과 김희중 대주교님도 참석하셨다.

지역 대표자들의 소식 전달 모임

매년 로마총본부에서 열리는 전 세계 지역 대표자들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 포콜라레 공동대표인 문원주 마리스, 김석인 알베르토는 포콜라레 전체 회원들에게 영남 소지역과 서울 소지역에서 11월 3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소식전달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금년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명이며 새 계명이라고 하신 '서로 간의 사랑'을 생활함으로써 성삼위적 사랑을 배우고 실천

_42-‡»` 5 1904.1.1 8:16 PM ˘ ` 75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하는 해가 되도록 하자고 했다. 창설자가 돌아가신 후, 창설 초창기 삶의 원천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 세계 포콜라레 운동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주었으며, 내년 로마에서 열릴 포콜라레 운동 총회 준비에 대한 소식도 전해 주었다.

포콜라레 사제 피정

이탈리아 포콜라레 총본부에서 사제운동 책임을 맡고 있는 토니노 간돌포 신부와 후베르투스 블라우마이저 신부가 방한하여 포콜라레 영성을 살고 있는 40여 명의 사제들과 함께 정하상바오로 교육관에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피정을 했다.

이번 피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한 일이야 말로 교회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길임을 체험했다.

피정에 참여한 사제들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 길만이 성삼위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세상에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제47차 정기총회

한국 가톨릭 나사업 연합회 '제46차 정기총회'가 2013년 11월 20일(수)에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돈보스코청소년영성사목센터 부설 교육관(살레시오회)에서 개최되었다. 구라사업을 위한 기도로 시작된 이번 총회는 회장 황복만 필립보네리 수사(살레시오회)의 인사로 이어졌고,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롭게 운영회원으로 선출된 5명의 운영회원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김재수 님, 박수만 님, 함병철 님, 양정성 님, 하숙진 님 총 5명)

이번 총회에서는 2013년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회계 및 운영감사보고(2013년 11월 13일 대구 구라복지사업 권영우 국장이, 15일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서창원 부장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의 회계 및 운영을 감사한 결과), 2013년 활동보고 및 2014년 예산(안)심의가 있었으며 임원 개선이 이루어졌다. 회장으로는 황복만 수사가 재임되었으며 김재수 운영회원이 새롭게 감사로 선출되었다.

_42-‡»` 5 1904.1.1 8:16 PM ˘ ` 76 G4ˆ•´ PS IN 2750DPI 300LPI T

레지오 마리애 대구 세나뚜스

레지오 마리애 평의회 총회 개최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단장 류해석, 담당사제 하성호)는 2013년 11월 24일(일) 대구대교구청 내 교육원 대강당에서 2013년 레지오 마리애 평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구대교구 내 전 꼬미시움 간부 및 꾸리아 단장 380여 명이 참석했다.

류해석 단장은 인사를 통해 "레지오 마리애 신심은 '하나 됨' 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정신은 레지오 마리애 신심을 중심으로 일치를 이루려는 '하나 됨' 의 정신이다. 레지오 안에 일치를 이루며 성모님의 순종, 겸손, 봉헌의 삶을 살아가며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며 일치와 친교를 강조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2014년 활동주제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로 정하고 성모님의 순종, 겸손, 봉헌의 삶을 본받는 레지오 공동체를 지향하기로 했다. 또한 활동의 중점목표를 각 평의회 및 쁘레시디움에 알맞은 특성화된 활동의 개발 및 실시로 정하였으며, 쁘레시디움의 활성화를 위해 주 회합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중점 검토되었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가 주최하고 청주교구 가톨릭간호사회가 주관한 '2013년도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피정' 이 11월 2~3일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14개 교구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주교구 가톨릭간호사회 지도신부인 김선영 마태오 신부의 말씀의 전례로 시작하여 음성 꽃동네 원장이신 신상현 수사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특강과 청주성모병원 수술실 식구들의 역할극, 오현숙 안젤라 강사의 '기쁜 날' 의 친교의 시간, 고백성사로 첫 날을 마무리하였다. 늦은 밤 10시부터는 제54차 전국이사회가 개최됐다.

둘째 날인 11월 3일엔 성무일도의 아침기도로 하루를 열었으며 김종임 마르타 교수(충남대학교 간호학과)의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라는 제목의 강의가 이어졌으며 청주교구장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 청주성모병원장 성완해 안토니오 신부, 기획조정실장 안철민 신부, 김선영 원목실장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파견미사를 봉헌하였다.

_42-‡»` 5 1904.1.1 8:16 PM ˘ ` 77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한국가톨릭 교수협의회
정기피정 세미나와 총회 개최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소속 서울가톨릭교수협의회(회장 이진규 세바스찬, 담당사제 이준규)의 정기피정 세미나 및 총회가 경기도 시흥시 성바오로 피정의 집(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2013년 11월 2~3일 이틀간 개최되었다. "우리는 두 개의 깃발 아래에 서있다:성 이냐시오 성인의 교육영성!"이라는 주제를 바탕으약 40여 명의 회장단 및 회원 교수들이 모여 예수회 정제천 요한 신부의 지도 아래 침묵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가톨릭 교수들이 나아갈 바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제139차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회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는 11월 11일(월)~15일(금) 4박5일에 걸쳐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사제 수도자 86명이 모여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회를 개최하였다. 바쁜 일정을 쪼개어 어렵게 내서 오신 신부님, 수녀님들께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사와 축복을 내려주셨다.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소임지로 가시어 주님의 파수꾼으로 주님을 닮으려 노력하고 더 열성적으로 맡겨진 임무에 기쁘게 임하고 신자들의 마음을 더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는다. 주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리고 봉사해주신 신부님, 수녀님들과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전국 회장단 회의

한국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는 10월 10일 부산교구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동구 초량동)에서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하반기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금년 9월까지의 사업보고 및 평가, 선교회별 활동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 행사와 관련하여 전국 레지오마리애 피정 개최지 선정, 전국 하계수련대회 준비 및 주교회의 지원 신앙서적 발행사업 대상 도서 선정,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등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29일에 있었던 청주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창립을 축하하며 많은 격려와 함께 본부 및 인근 교구 선교회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였다.

_42-‡»` 5 1904.1.1 8:16 PM ˘ ` 78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한국가톨릭약사회

성지순례/특강/정기총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가톨릭약사회는 지난 11월 3일 일요일, 충북 제천에 있는 '배론성지'를 순례하고 총회를 가졌으며 '순교선조 들의 믿음'에 대한 배론성지 주임 여진천 폰시아노 신부의 특강을 들었다.

40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인천교구 가톨릭약사회에서 함께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다.

가톨릭신자 약사들이 신앙생활을 활성화함으로써 교회 가르침에 따라 말씀을 전파하며 생명존중과 환경보전, 이웃돕기 운동 등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보건의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1983년 6월 8일 창립미사를 봉헌하여 설립된 가톨릭약사회는 총회에서 앞으로 그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고 젊고 새로운 회원 발굴과 피정 등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한국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회원교육

한국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한가협)는 10월 7일(월) 광주대교구 교구청 및 대건교육관에서 전국 회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가협이 결성된 이래 최초로 실시된 이 교육에서는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를 강사로 모시고 원전을 중심으로 한 환경 문제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원전문제를 비롯한 모든 환경문제를 그리스도교적 윤리와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해보고, 신앙인들의 사소한 생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가 미래의 자연과 후손에 대한 책임임을 일깨워준 교육이었다.

제3차 상임위원회

한가협은 11월 18~19일 이틀 동안 대전교구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1개 교구 회장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7일에 있었던 전국 회원교육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4년 4월 29일(화)~5월 1일(목)에 개최될 제40차 정기총회 및 제32차 연수회 일정과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진산 성지와 공세리 성당을 방문하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_42-‡»` 5 1904.1.1 8:16 PM ˘ ` 79 G4ˆ•´ PS IN 2750DPI 300LPI T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전국 교구 회장단 회의 개최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홍영선)는 2013년을 성찰하면서 다가오는 2014년의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자 전국 교구 회장단이 대전시 유성구 소재 아드리아호텔 및 유성복집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1박2일 동안 대표담당사제인 김평만 유스티노 신부님을 비롯하여 6개 교구에서 총 14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안건으로 ▲2013년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활동 및 회무, 재무보고 ▲각 교구 가톨릭의사회 활동보고 ▲2014년도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정기총회 및 피정 관련 ▲필리핀 태풍피해지역 돕기 성금모금 관련 ▲협회지 발간 건 ▲생명윤리위원회 상설기구화에 대한 내용 ▲재정 곤란의 타개방안을 다루었으며 파견미사로 마무리했다.

수원교구 가톨릭의사회는 2013년 4회에 걸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원시의 가톨릭 신자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 더 나아가서 일반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가톨릭의사회 회원 수 확장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_42-‡»` 5  1904.1.1 8:16 PM  ˘  ` 80 G4ˆ•´ PS IN 2750DPI 300LPI T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기도문

지극한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보내주시어
혹독한 박해로 쓰러져 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자애로운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땀의 순교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는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으로
구만리 고달픈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방방곡곡 교우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을 돌보는 데
온 정성을 다 바쳤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의 선교 열정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6년 3월 1일 (최양업 토마스 사제 탄생 185주년)
청주교구장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 인준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은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 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해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

소 속	이 름	세례명	이메일주소
서울평협	신동수	세라피나	sera006@hanmail.net
대전평협	이병인	미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wonju@pbc.co.kr
부산평협	공복자	유스티나	kongbog@hanmail.net
청주평협	정영수	프란치스코	cjjys2000@korea.kr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조은정	마리아	chomaria3@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두현자	율리안나	doonim53@hanmil.net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m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김혜원	율리아나	yuliana88@hanmail.net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공·지·사·항

- 2014년 제27회 한국평협 정기총회가 오는 2월 15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발 행 인 최홍준 파비아노
담당사제 손희송 베네딕토
발 행 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위원 김선동 루카, 배봉한 세례자 요한, 이가연 파우스티나, 이귀련 세실리아, 이재철 베네딕토, 이지연 마리아, 이창훈 알퐁소
편 집 장 김후남 파비올라
제 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사진제공 월간 가톨릭 비타꼰
디 자 인 고미자(디자인투데이)

한국평협 100-809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02)777-2013, F. (02)778-7427 Mail. clak@catholic.or.kr 홈페이지 : http://clak.or.kr

□□□»¨£˙¥˙□ 1904.1.1 10:25 PM ˘□□□˙□1 G4ˆ□•´ PS_IN 2750DPI 300LPI T

제8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안내

우리 정서에 잘 어울리는 성가의 창작과 육성으로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도록 하며, 전례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우리성가 창작공모에 역량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응 모 마 감 : 2014년 3월 31일(당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당선작발표 : 2014년 5월중 홈페이지 발표
출 품 요 건 : (1) 1인 1곡 출품(가톨릭신자 및 예비신자)
(2) 노랫말은 제8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선정작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
※ 노랫말은 본 협의회 홈페이지 – 주요활동 〉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가톨릭교회 전례에서 신자들 또는 본당 성가대가 어렵지 않게 부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2성부 이상의 합창곡
(4) 오르간 반주곡(무반주 합창곡은 3성부 이상이어야 함)
(5) 악보와 1절 이상 연주한 반주녹음(MR) 제출

시상
최우수상 1편 / 상패와 상금 200만원
우 수 상 2편 / 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
장 려 상 3편 / 상패와 상금 각 50만원

보낼 곳 : (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사무국

문 의 : 02-777-2013, 757-7851 Fax 02-778-7427
www.clak.or.kr
e-mail : clak@catholic.or.kr